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 하리니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4월 25일 (토) 제 1774호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전 세계가 위기에...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CT, 젠 폴락 미셸의 코로나19 견디는 기도제목 20가지 소개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포되고 국가들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내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뉴스 기사를 찾아보는 데 더 집중했다. 급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위축될 때 기도하라고 명하신다. 기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시라”(빌4:6-7, 메시지성경).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어야 한다.”

크리스찬티티튜데이는 젠 폴락 미셸(Jen Pollock Michel, “Teach Us to Want”, “Keep Place”, “Surprised by Paradox”의 작가)의 코로나19 견디는 기도제목 20가지를 소개했다 (20 More Prayers to Pray as We Approach the Pandemic’s Peak: Petitioning God is still the most powerful way to respond in crisis).

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전염병의 시기에 나눌 기도제목 20개를 각 공동체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씩 적었다. 나는 감사하게도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데, 그들에게서 직접 기도제목을 받아 그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 또한, 이 기도제목을 작성하며 현 위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다.

이 기도제목이 물론 전부 가 될 수는 없지만 기도를 시작하기에 좋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교회의 몸이 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희망한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자.

1. 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위해: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 빨리 막아주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2.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주소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길 간구합니다.

3. 젊고 건강한 이들을 위해: 의도하지 않게 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이 타인을 돕도록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4. 우리 정부기관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환자들에게 코

나 질찬 치료에 필요한 의료 지원을 충족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5.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계 종사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6.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 그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도와주소서.

7. 정보를 찾는 미디어 소비자들을 위해: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혼란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소서.

8.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9.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과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시길 기도합니다.

10.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11. 전 세계 특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들을 사용하시길 간구합니다.

12. 해고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가 자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면으로 계속)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 장례예배를 김성국 목사가 진행하고 있다.

본지 2대 발행인 장영춘 목사 별세 장례예배 4월 17일 livestreaming으로 중계

본지 2대 발행인이며 퀸즈장로교회 원로 장영춘 목사가 성금요일인 4월 10일 오후 4시50분 뉴욕장로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본지 발행인으로 26년간 재직해온 장영춘 목사는 퀸즈장로교회를 개척(1974년)하고 목회했으며(2012년 은퇴), 동부개혁신학교 학장(1987-2017)과 미주크리스천신문사 발행인(2018년말 사임)으로 재직했다.

장례예배는 4월 17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본당에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실황이 livestreaming으로 중계됐으며 전 세계에서 850명이 동시 접속했으며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면 예배참여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관예배 역시 직계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 장지 파인론에서 드려졌다. 유족으로 장미은 사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으며 장남 장훈 목사는 시카고 병원 원로, 장녀는 목사 사모다.

고 장영춘 목사의 사역을 이어받은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동부개혁신학교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는 “장 목사님은 요셉의 꿈을 가졌던 비저너리였다”며 “그 꿈을 퀸즈장로교회에 주시고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셨다. 1세대 선진들의 헌신과 함께 비전을 이루신 것처럼 초대교회 부흥과 선교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장례예배 마무리에서 밝혔다.

장례예배
예배는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 사회로 흥송룡 장로(퀸즈장로교회)의 기도와 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의 설교, 추모영상, 조가(김만규 목사, 천성덕 목사, 김혜천 목사, 김승욱 목사), 교계 추도사, 엄태용 목사(시티라이프교회)의 조사, 특별 영상, 광고 한일철 목사(KAPC 서기),

축도 조문회 목사(KAPC 부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양수철 목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3:11-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간최고의 핵심가치 3가지는 창조주, 말씀, 인간의 영혼”이라며 “본문에 의거해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16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213)289-9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발행인 칼럼

남자의 일생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여자의 일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파상이 떠오른다. 아나니 모파상의 소설 가운데 기구(崎嶇)했던 여인 “잔느”의 이야기 때문에 “여자의 일생”이란 단어가 더 각인되어 있다. 왜 모파상 소설뿐이겠는가. 가수 이미지씨의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도 애잔하다. “잠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질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미지씨의 목소리에 녹아진 여자의 일생에 남자인 나의 마음에 왜 이리 먹먹할까. 소설과 노래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는 눈물 없이 또는 분노 없이 들을 수 없는 여인들이 이야기로 준비하다.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계속 이름이 바뀌면서 흘리는 눈물의 주인공들, 그 이름 여자(女子)이다. 물론 가득 찬 눈물만이 아닌 또 다른 “여자의 일생”도 다양하게 있다.

지난 주간 한 “남자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본보(本報)의 직전 발행인이기도 하였고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원로목사님이셨던 고(故) 장영춘 목사님의 일생이었다. 목사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또 필자가 20여 년을 넘게 가까이서 가르침도 받고 섬기기도 하였던 시간 속에서 목사님의 일생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다. 대단하신 일생이었다. 아버지가 건네준 성경하나 들고 남하(南下)하여 힘든 피난생활을 보내시다가 교회의 관리 집사로 평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교수를 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미주 한인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다. 교회와 신문사, 신학교와 수많은 사역들을 힘겹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셨다. 그의 넉넉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이란 말과 같았다. 그는 때때로 쓰러진 적이 있어도 좌절을 몰랐다. 그에게 몰아치는 어려움이 있었어도 타절을 몰랐다. 비전도 선명했고 중심도 분명했다. 그는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는 비전을 세웠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목사님의 일생을 꺾는 단어를 이면에 찾았다. 한 단어였다. 그를 만난 모든 자들이 쓰는 단어였다. 나는 지난 주 목양칼럼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었다. 목양칼럼의 제목은 “사랑의 퍼즐”이었다. 이렇게 써 내려간 칼럼이었다. “퍼즐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큰 퍼즐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드디어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목사님의 장례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추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니 한 큰 인물의 퍼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고(故) 장영춘 목사님에 대한 각 사람의 퍼즐을 모아보니 사람 숫자만큼形形色색이었으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모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입니다. 목사님의 생애는 사랑의 퍼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후일에 생명 그칠 날이 있을 터인데, 어떤 퍼즐을 남길 것인지 목사님도 추모하면서 스스로의 모습도 깊이 생각했을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고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공인생을 빚으려 살지 말고 사랑인생을 빚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임을 누구라도 깨달았을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렇다. 그 남자의 일생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셨고,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하신 일생이었다.

교회재정 조달/사용, 업데이트 해야 한다!

UMC목회위원회, 코로나19 위기에 놓인 교회 재정담당자를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제공

다음 아이디어들을 담은 목록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상이 된 요즘, 특별히 각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속한 교회와 해당 목회적 토대를 유지하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하는) 일을 돕기 위해 작성됐다(10 Ideas for Church Financial Leaders Amid the COVID-19 Crisis).

1. 디지털 방식으로 현금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이한 단어로 종식됐다: 코로나

만약 당신의 교회에 이미 온라인 현금이 활성화돼 있다면, 코로나19 폭풍이 몰고 올 기회를 감당하기에 조금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적절한 은행이나 후원 서비스업체를 찾지 못했다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비교해보고, 다른 교회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더 나아가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라.

만약 온라인 현금 옵션을 사용하고자 노력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 페이팔(PayPal)은 자선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부 서비스를 2.2%의 낮은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인들 중 이미 페이팔 계정이 있는 사람

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현금접시(주머니)도 예외는 아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의식이 고조된 이 시기에, 접근이 편리한 곳에 현금함이나 현금바구니(또는 현금접시 자체)를 따로 비치해 다른 사람들이 만진 현금접시를 또 다른 누군가가 만지지 않는 방식으로 봉헌하도록 유도한다.

4. 계수위원들은 비위생적인 지폐를 다룬다—안전책을 강구하라

찾는 교인들로 하여금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에 최소한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이미 몇 가지 대책을 강구했을 거라고 소망한다. 하지만 만약 그 계획이 주일예배 장소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면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정식 라이선싱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을 통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화상 또는 전화 회의

7. 소득에 영향을 받는 교인들을 의식하라

교인들 중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재택근무 제안을 받은 일부는 오히려 저축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감염 확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미 근근이 버티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여행, 저녁외식, 오락물 줄이기, 근로시간 축소, 또는 초과근무 같은 것들이 모두 잠재적 어려움의 대상이다. 당신의 교회가 모든 소통의 창구를 통해 이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8. 나이가 든 교인들이 더욱 취약하다—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관심을 보여라

우리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디지털 방식 현금결제 필요, 코로나바이러스 원조자금 고려
계수위원 위생관리, SNS로 교제, 소망 격려 메시지 보내기

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2. 교인들에게 온라인 자동결제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유하라

교인들이 거래하는 은행에 “온라인 자동결제” 옵션이 있는지 문의하라. (미국의 경우) 정기 납부방식으로 교회를 지정하면, 은행에서 전자수표를 만들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해당 업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심지어 우편요금까지 지원해 준다!

3. 현금 접시돌리기는 잠시 중단하라. 접근이 편리한 곳에 현금바구니를 비치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발로 인해 사람들은 타인의 손이 닿은 것을 만지는 것에 대해 민

유감스럽게도, 현금봉투와 현금은 이 강력한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 돈을 세고 기록하는 계수위원들에게 손세정제와 (라텍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장갑을 제공하라. 계수위원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수위원이 지폐봉투를 세기 전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묻히는 장면은 즉시 질병관리센터로 연결되는 경보기를 울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라!

6. 주일에 이뤄져야 할 일들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예약하라

만약 교회의 소식지나 기타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 이미 이메일(SNS)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토요일 밤이나 이른 주일아침에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예약해도 괜찮다. 교회의 재정 사용이 축소되거나 모임과 공예배가 취소된다고 하

기술을 도입해 교인들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7. 주일에 이뤄져야 할 일들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예약하라

만약 교회의 소식지나 기타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 이미 이메일(SNS)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토요일 밤이나 이른 주일아침에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예약해도 괜찮다. 교회의 재정 사용이 축소되거나 모임과 공예배가 취소된다고 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욱 감염되기 쉽다는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 듣고 있다. 나이 든 교인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더욱 신경쓰기를 바란다. 예배에 대한 대안을 세워 계획하듯, 요즘 시기에는 목회적 돌봄을 위한 전략 또한 중요한 영역이다. 이것은 꼭 목사나 직일들의 몫이 아니다. 은사가 주어진 일반 교인들을 모집해 그들을 통해 연세 많은 교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대표)
Fax (718)986-0074 (대표)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 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9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전 세계가 위기에...우리는 무를 꿔습니다.

(1면에서 계속)

13.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돌보고 모든 가정이 편안하길 기도합니다.

14. 직장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5. 필요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이 사태로 인해 치료가 미뤄졌을지라도 그들이 참을성 있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6.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업가들을 위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이끄소서.

17. 사회적 소외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이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18. 학업이 연기되고 취소돼 졸업이 불확실한 대학생들을 위해: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소서.

19.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을

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더욱 영광 받으시게 하소서.

20. 현재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 그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의료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소서. 의료진이 빠르게 변하는 병의 진단과 치료, 대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이 명확한 판단력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소. 의료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아프고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족함 없이 채우소서. 그리스도인 의료진에게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안함의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글로벌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신실하신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와주소. 하나님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멘.

교회재정 조달/사용, 업데이트 돼야 한다.

(2면에서 계속)

식료품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마당에 기본적인 식재료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바이러스에 방책으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을지라도 당신의 교회는 본 위기상황을 지나며 기본적인 배려적 관계를 지속하고, 어쩌면 그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코로나바이러스 원조자금을 고려하라

실제로 그렇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부할 곳을 모색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원조자금을 모으기 위해 교인들에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정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늘 부족하다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다보면 사람들이 교회운영을 위한 일반헌금을 내지 않고 지정헌금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를 소집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할 것이며, 필요시 당회의 결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이 두 가지 모두 전화나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너그러움에 감동하게 될 것이며, 교인들과 지역사회를 향해 당신이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목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10. 소망과 격려,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라

이번 위기로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교인들과 함께 소통할 때, 소망과 격려의 목소리를 내라—우리는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낼 거라고,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업무 성취에 대한 확신”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회가 계속해서 임팩트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기념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라.

교인들의 헌금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보살피고 보듬은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라. 관계적 헌금을 통해 발생한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협의회 및 세계 전반을 통틀어 원조를 받은 생명들에 대해 나눠라. 그들의 헌금이 지역사회에 경계를 넘어 사용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코로나와 크라운 그리고 면류관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코로나(Corona)와 크라운(Crown), 왕관(王冠)은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영어 그리고 우리말이다. 코로나는 원래 동근 태양 바로 위에 있는 붉은 채층을 뚫고 뻗어 나오는 대기층으로 평소에는 태양 빛 때문에 볼 수 없다가 개기일식 때 태양이 가리어지면서 주변으로 뿔어져 나오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기도 하다. 그런데 그 형체가 마치 왕의 존엄과 고귀함을 담은 왕관과 같다 해서 이번 바이러스의 이름을 코로나라고 붙인 것이라고 한다.

원래 DNA나 RNA를 유전체(genome)로 가지고 단백질에 둘러싸여있는 바이러스(virus)는 혼자서는 번식이 불가능하며 라틴어로 poison(독)이라는 뜻을 가진 존재가치도 없어 보이는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세상을 보자. 너무나 찬란한 면류관이라는 신학적 이름을 가진, 그러나 혼자서는 증식도 할 수 없는 미물 중의 미물인 바이러스가 감히 최고의 가치를 지닌 만물의 영장으로 자부하는 인간세계를 초도화 시키고 있다.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예배조차 바이러스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미래의 세상까지 온통 흔들어놓았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생존과 생활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2미터가 채 안 되는 인간을 3-4백미터 되는 다운타운의 고층빌딩만큼 부풀려놓는다 해도 지구 밖에서는 점 하나도 안 되어 보이는 것 같은 비율로 이해해볼 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는 ‘존재가치’를 자랑하며 살아온 인간의 무능함과 왜소함을 깨닫게 하면서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고독을 무서워했고 꺼려했다. 사실 홀로 있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 우리는 서로 만나야했고, 함께 어울려야 했다.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 어울리며 위로도 받고 때론 성취감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서 살아오지 않았던가. 어느새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않았던가.

어울려 사는 사회적 인간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런 사람을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예)인간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시대가 되면서 혼밥이라는 단어가 일반화 될 정도로 스스로 그 고독의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모임을 중요시하는 교회도 그 영향의 하나로 가나안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굳이 교회에 가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피곤해질 필요가 있을까,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라며 나홀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시론

증가추세를 타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치 재판의 선고처럼 딱딱하게 사회와 교회를 옥죄고 있는 상황을 만난 것이다. 마스크를 쓰고 안전노출을 피해라,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를 유지해라. 모이지 마라.... 사실 교회를 떠난 홀로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이나 교회공동체라는 보호막 안에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의 사회적 예방지침은 ‘두려운 명령’인 것이 사실이다. 명령할 수 있는 힘은 왕에게 있었던 것처럼, 왕관을 쓴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명령했고, 인간들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왕의 복심(腹心)은 왕만 알듯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자기의 뜻을 아직까지 인류에게 들지 않고 있다.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고 있다지만 사실 교회가 예배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은 아니다. 교회의 주어(主語)는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끊고 있으려는 바이러스의 명령에 꼼짝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자.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사태, 이 상황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인 시간임. 바이러스가 막고 있는 것은 ‘예배모임’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일 뿐이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당 건물에 모이는데 집중해왔다. 분명히 모임 후에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야 하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 솔직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며 그 속에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 바이러스가 교회모임을 막았지만 성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 성도와 성도가 영적교제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

코로나(Crown)같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이러스는 영광의 면류관(冕旒冠)을 쓰고 영생을 약속 받은 성도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다. 당장 영상예배와 모임들을 하느라 우리의 전통적 예배가 불편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방법의 변화가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이 또한 유익한 부분을 찾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돌단을 쌓아놓고도 드릴 수 있었던 야곱의 예배, 북한 강제수용소에 억류된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드린 임현수 목사의 나홀로 예배가 가능하듯, 이젠 대중 속에 섞여있는 예배참가자가 아니라 어디서나 막힘없는 나홀로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코로나 왕관’보다 더 찬란한 ‘면류관의 예배자’로 새로운 환희의 세상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COVID19로 인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대전문
뉴욕(Tel. 718) 762-0011
뉴저지(Tel. 201) 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의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내, 치아미백(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347-223-1531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 예닮장로교회(PCA)는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1)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 중 PCA소속 이거나 가입 가능한 분. 2)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가능하신 분.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하신분. 4)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력에 있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 소개서 및 사진 포함), 2) 목사 안수 증명서 및 노회소속 증명서, 3) 신앙 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4) 학부 및 신대원(M.Div)졸업 증명서, 5) 2분 목사님의 추천서(추천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6) 최근(6개월 이내)설교 동영상 2회분 file, Website link, 7)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보내실 곳: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9946 SAUMS RD. KATY, TX 77449, TEL.FAX:832-321-5035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이 안됩니다. 2) 문의 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weeklysportnews@gmail.com 3)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 2020년 4월 6일
- 휴스턴 예닮장로교회 청빙위원회 -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드립니다
전 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 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2 교 회(기관) 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5 사택 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
8 Web Add. http://
9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O 표시를 하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자유를 위한 간힘

세계가 온통 다 갇혀버렸다. 하늘도 닫히고 땅도, 바다도 닫혔다.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다 닫혔다. 나라와 나라들도 닫혔고 도시와 도시들도 닫혔다. 직장도 닫히고 학교도 모든 비즈니스도와 시설, 기관들도 몽땅 닫혀버렸

다. 2천년 역사에도 닫힌 적이 없었던 교회마저도 닫혀버렸다. 하늘의 비행기들도, 하이웨이의 자동차들도 완전히 사라졌다. 핸들을 잡고 달리는 데 딱히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 사랑하는 이웃들이 별세를 했는데도

장례식은커녕 문상도 못하도록 단아버렸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온종일 가족들만이 한 가정 안에서 갇혀 지낸다. 한 가족이라도 양성과 음성은 윗층, 아랫층으로. 이 방과 저 방으로 각각 격리하여 갇혀 있다.

모든 사회, 활동이 완전 스탑되었다. 이제는 사람들의 정서와 인내마저도 더 이상 간힐 수 없다고 거리로 뛰어나와 데모를 하는 도시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 세대에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갇힘을 겪고 있다. 일상의 삶이 갇힐 때 그대도 모두가 당하는 일이라서 조금은 덜 갑갑하다. 이것이 상대성 심리효과라고 하던가? 문제는 모두가 당하는 갇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질 것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폐결핵으로 2년6개월을 갇혀보았다. 마산 가포리 요양소

에서, 그리고 광양만 외딴 시골농가에서 2년을 갇혀 있었다.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었고 학교와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 소외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갇혀 있었다. 동서남북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마음도 영혼도 처절하게 갇혀버렸다. 그러나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위로 열린 우주세계의 무한대의 공간이 있음을 보았다. 자신의 무능과 불가능을 넘어 인생을 우주로 맡겨 운행하시는 절대자를 보는 순간 그 끝없이 넓고 넓게 펼쳐진 상천하지는 내 품안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실감하곤 했다. 아침저녁으로 그 분의 러브레터를 읽고 묵상하면서 좁은 가슴에 우주를 품게 하였고 갇힘은 또 하나의 열림의 시작인 것을 깨닫고 되었다. 끝없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다. 잠깐 잊드리 기도했는데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는 순간에서 영원의 신비를 맛보기 시작했다. 흑암의 골방

에서도 거리를 초월하는 독수리눈의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절대자와 동행하는 법을 익혀나갔다. 갇힘이 이제는 영원한 자유로의 출구임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 분께서 주신 러브레터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갇힘의 우주세계의 무한대의 공간이 있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허왕된(?) 약속을 붙잡고 25년의 갇힘 속에서 끝내 아들을 품에 안았다. 모세는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 갇혀 있었다. 요셉은 20세 어린 나이에 10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다윗도 일상의 삶으로부터 쫓겨나 광야에서 13년의 갇힘 속에서 지내야 했다.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33년의 인생이라는 육신의 삶속에 갇혀 죽으심으로 자유함을 누리셨다. 바울 사도는 수를 셀 수 없는 투옥의 갇힘 속을 반복하면서

오늘의 우주적인 기독교의 골격을 완성해 내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갇힘에서 자유를 얻었다. 남아공의 멘델라를 27년을, 한국의 국부 이승만은 6년을, 마틴 루터 킹도 수없이 감옥에 갇혔었다. 현재 지구촌은 우환페럼으로 갇혀있다. 앞으로 최소한 한 달을 더 갇혀야 한다.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갇힘 속에서 '가장 높이 오르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을 붙잡던지... 시력이 약하면 베르디의 '히브리노예들의 합창'을 감상하면서 어떻게 70년의 갇힌 저 포로들이 눈부신 금빛날개를 달고 자유의 창공으로 솟아 날 수 있었는지 찾아보면 좋겠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앞으로 한 달이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한 갇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안에 갇혀서 감염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23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되고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생명이 천보다 귀한 것이지만 죽음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15만이 라는 숫자의 감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게를 회피하면서 하나의 숫자로 말하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는가? 산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고 잘 살아야지'하는 마음으로 죽음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무감각하게 됩니다. 엄청난 범죄와 책임의 무게에 눌리게 되면 '죽으면 끝인데'라는 생각으로 자살합니다. '잘못하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한탕주의로 살아갑니다.

터키 카이세리라는 지역의 감바도기아에 가면 '괴레메'라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땅속 12층 깊이 아래 동굴을 파고 성도들이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신학교와 예배당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와 감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베드로가 위로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죽으면서 끊어지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잠11:7). 믿음 없이 살면서 가진 모든 소망은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가 가진 소망은 죽으면서 더 찬란해집니다. 고구마 줄기를 들면 붙어 있는 고구마들이 다 따라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으로 붙어있는 우리도 다 부활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해보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오늘날 죽음을 놓고 슬퍼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니까 정말 슬픈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랑하는 부모님이 옆에 지녀도 없이 외롭게 죽어가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는 길, 죽음이 올 때부터 성도는 시작입니다. 영광스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슬프게 보다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는 바울의 신앙,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5절).

땅굴에서 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주시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국방의 힘, 경제의 힘, 과학의 힘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9.11 테러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이런 힘자랑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국방의 힘을 자랑하는 미국 펜타곤에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거대한 군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정박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제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바이러스로 경제활동이 모두 정지되고, 과학의 힘으로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미국이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인생은 '그라운드 제로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믿음이 더해지고, 고난으로 인하여 성화의 단계가 오르고,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약1:3)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환난 가운데 사자의 발이 되어 죽어가면서, 살기 위해 핏박을 피해 동굴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아가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사안이 문을 닫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쁨'으로 이겨내는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재앙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이론이나, 논리적 이야기 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이라는 두려움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모두 헛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편과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중단되고 사안이 문을 닫아서 수입이 없게 된 바이러스사태가 심각하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위로받기 미안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사는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먼저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3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이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산 소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경쟁하고 싸우며, 그러다가 결국 인생은 다 가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세상의 소망, 죽은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데, 본문은 이 "산 소망"을 "유업"이라고 했습니다(4절). "유업"을 성경의 다른 번역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이 힘겹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좀 더 힘을 내자'하면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시를 당할 처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이라고 하십니다(사43:1).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ground zero)라는 것입니다. '그라운드 스톱(grounding stop)'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미국의 막강한 국방력과 경제력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두려움입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시91:10)라고 약속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지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로의 말씀은 시험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6, 7절).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는 거듭나고 성화의 길을 갑니다. 성화는 순간적 사건이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의 집을 지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생에 세 가지 신앙의 기둥을 세우도록 합니다. 생명의 창조 신앙, 새 생명의 부활 신앙, 그리고 온전한 생명의 재림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chang@bostonkorea.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트럼프 행정부의 '태아조직 치료연구 제한 및 금지' 결정에 반발하는 하원 민주당

지난 4월 6일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HHS(Health and Human Services)의 Secretary인 Alex Azar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2019년도에 내린 태아조직 사용제한 및 금지명령(Restriction on government funded use of Fetus Tissues)을 당장 취소시키라고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Pro-Life(태아생명보호) 대통령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2019년 6월, 태아세포조직과 장기를 사용하는 연구관련 자금을 대폭 삭감 및 정치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여성(임파) 선택한 낙태(elective abortion)라고 할지라도 낙태에서 생존한 태아는 살아있는 인간이기에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다시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태아 생명"이 희생되는 연구를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유들이었습니다.

심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방법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펜스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하원 민주당은 "우리는 전례 없는 전 세계 비상사태 속에서 과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명을 구하는 연구에 대한 모든 장벽을 제거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는 납세자들의 지원을 통해 연구되는 것"이라며 "이 연구의 중요성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의사나 연구원들이 연구 수행을 위해 민간자금으로 지원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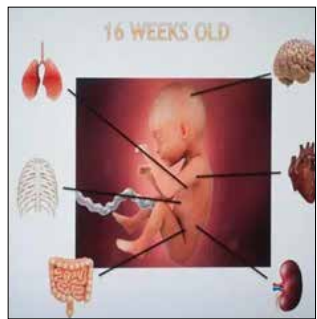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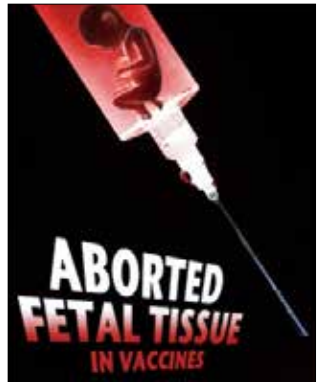
John Yoo 전 검찰차장은 "우리가 태아조직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단계는 연구자료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낙태를 하게 될 수 있으며, 낙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아성 조직체료를 얻기 위해 태아복제도 시작될 수 있는 큰 파면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잘못된 선택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가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과 같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처럼 분명한 규정을 만드는 것만이 큰 파면을 초래하지 않는 지름길이며 비윤리적인 것을 강행하려는 욕심들에 대항하며 바른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아조직사용에 반대 의견

수십년간 최전선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PRO-LIFE 운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대표들, 저희와 같은 기독교 가치관 수호 단체들과 깨어있는 크리스천들, 기독교 법률소 등이 강력히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이런 "태아생명보호" 정책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때 검찰차장으로 있었던 코리안아메리칸인 John Yoo 전 검찰차장은 지난주 FOX 뉴스에서 태아조직 사용을 다시 허용해야한다는 인물과의 논쟁에서 다음처럼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아조직이나 장기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법을 찾는 데 핵심적인 과학적 증거나 또는 연구 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고 여태까지 본 사람이 없다. 아직 확실치도 않은 상태에서 태아의 세포나 장기까지 사용하여 코비19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역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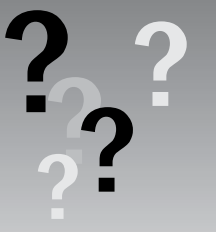
이번 COVID19 사태 파국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한 과학자는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펜스 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태아세포든 무엇이든 시도를 해야만 수

COVID19으로 인한 태아조직 장기사용에 대한 논쟁: COVID19 치료백신에 태아조직 생체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아조직사용 찬성 의견
낙태로 얻어진 태아조직을 사용하여 오바마 시절 때 특별히 HIV 에이즈백신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던 국립보건원(NIH)의 여러 과학연구원들과 이 의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미국 와서 교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신앙과 삶의 괴리현상으로 양심의 가책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1-2세기의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요? 구체적으로 알고 배우고 싶습니다.

- 가디나 Chung 집사

A: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신약시대부터 지중해 동부지역에 자리 잡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유명한 신약신학자인 F. F. Bruce의 "초대교회의 역사(The Spreading Flame)" 책에서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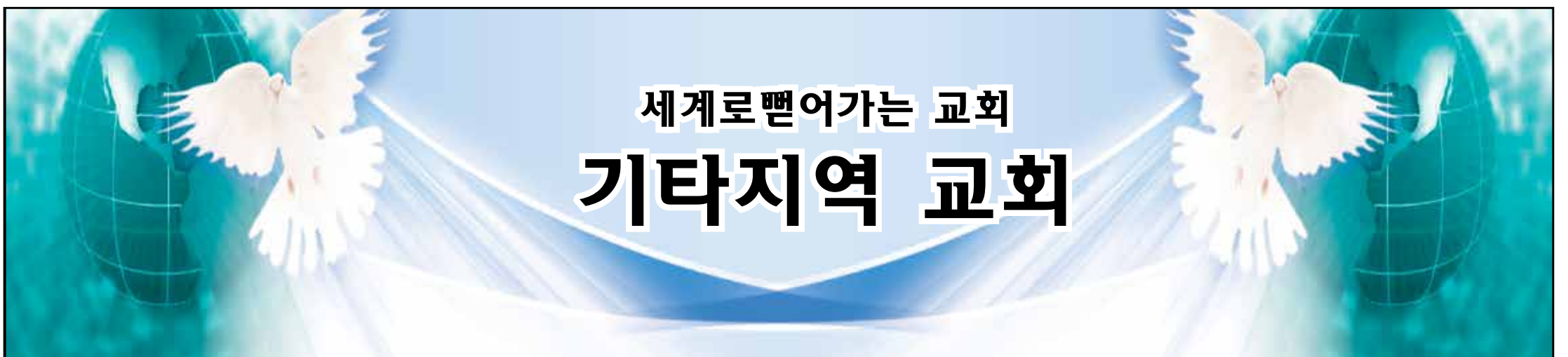
첫째, 성도 상호 간의 책임의식을 갖고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구제와 사랑을 베푸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 땅 수리아의 안디옥교회는 팔레스타인에 큰 흉년이 들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교회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구제헌금을 준비해 보냄으로 이방인 성도들의 애정과 상호 책임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구제헌위가 개 교회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시초에 부유한 신도들은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교회에 구제헌금으로 드려 교회 안에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분배하며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홀로 된 가난한 과부들을 교회에서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부뿐 아니라 신도들의 고아와 부모들이 원치 않

책임의식 갖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와 사랑 베풀어

아서 버린 유아들까지 돌보았습니다. 유아 유기는 당시 직업적인 장사꾼들에게 주었다가 노예나 창기로 팔아넘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교회를 많이 돌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의 빌립교회입니다. 빌립교회는 예루살렘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분에 넘치는 구제헌금을 하여 예루살렘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고후8-9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 볼 때 교회는 어느 정도 독립이 되면 주변의 미자립교회와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이 필요함이 우리의 책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를 돌보는 사역도 열심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 3세기 중반 알렉산드리아 시에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이 도시의 감독 디오니시우스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성껏 병자들을 돌보았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그들 가운데 발병의 징조를 보이는 자들을 내쫓았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도망하였습니다. 아직 채 숨이 끊어지지 않은 병자들을 시신으로 내쫓았으며 시체를 묻지 않은 채 유기하였습니다. 반면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병자를 간호하다가 병균이 옮겨 죽기까지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당국의 적대행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한 사실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행동의 이해를 초월한 사랑의 행동이 이교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분명합니다.

셋째, 노예들에게도 평등히 대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주장한 기독교 신앙은 고대 문명사회에서 필수로 받아들여지던 노예 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인간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로마법에 비하여 볼 때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living tool)로 정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대비시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을 자유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은 당신의 형제"로서 평등하게 대우하였습니다. (11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기도회: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유, 유년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79-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토요일: 오전 6:30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s.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45분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산시 브힐(SANSI BHIL)

산시 브힐족(Sansi Bhil)은 파키스탄 신드주의 북서쪽 시골 지방에 거주한다. 이들은 브힐(Bhil) 종족에 속하며 그들의 언어인 산시어(Sansi)는 인도-아리안 어족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2개 언어를 사용한다. 그 하나는 산시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속한 지역어로 신드어나 우르두어 혹은 펀잡어다.

이들의 역사는 1500년대와 1700년대 사이에 일어난 무굴



(Moghal)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산시인들이 전쟁에서 그들의 영토를 잃고 나서 인도의 북쪽을 배회하면서 유랑민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힌두교인들과 무슬림 간에 계속되는 충돌로 인해 1947년에 파키스탄이라는 독립된 이슬람국가가 탄생했다. 그 분리시기에 산시인들은 동부 편잡지역의 다른 무슬림들을 따라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 거기서 이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고 끼니를 위해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 몇몇은 도둑질을 하거나 소를 훔쳐서 범죄자 카스트(criminal caste)가 되기도 했다.

삶의 모습

산시인들은 부유한 파키스탄 지주를 위해 소떼를 팔거나 밭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 파키스탄 건국시에 산시인들을 위한 토지는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지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을 노예로 착취하다가 마지 못해 해방시켜준 경우가 많다. 이것은 파키스탄 내 주요한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

낮은 지위의 힌두 카스트 산시인들은 이주하며 농사를 짓는 일꾼들이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여분의 수입을 벌기 위해 계절을 따라 이주한다. 밀과 옥수수가 주된 작물이며 쌀, 목화, 기장도 생산한다. 산시인들은 숙련공이나 비숙련공으로 공장 혹은 제조소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산시문화에 있어서 여성들은 고귀한 지위를 갖고 있다. 결혼한 성인은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신부는 그녀의 가정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랫동안 산시인들은 대가족으로 살았으나 핵가족도 증가하는 추세다.

몇몇 산시 마을은 매우 작아서 대가족 하나 혹은 둘만으로 마을이 이룬 경우도 있다. 다른 신드 마을 근처의 산시 마을들은 대개 고립되었다. 산시인들은 부자가 거의 없고 전통적인 회칠한 집은 비좁고 더럽다. 오늘날 이들 중 일부는 함께 사는 가족들이 비좁지 않게 살기 위해 방이 많은 집을 짓기도 한다.

힌두교도인 산시인들에게 있어서 브라만(Brahmans, 힌두 제사장과 학자)은 가장 높은 계급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산시인들이 소속되는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는 사

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이다. 힌두 산시사회는 족장중심의 씨족사회로 구분된다. 이는 아버지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산시인들의 교육과 건강, 식사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양질의 물도 부족하다. 불행히도 많은 산시인들이 알코올중독자가 됐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구전설화를 통해 자녀 대대로 이어지는 풍부한 민속 역사를 갖고 있다.

신앙

많은 산시인들이 1947년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주하면서 빠르게 무슬림이 됐다. 다른 나머지는 미신, 예언, 공포와 같은 그들의 힌두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힌두교인들은 모든 생물, 무생물들이 영혼의 거처가 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갑자기 죽는 사람의 영혼과 시

기함으로서 저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악령의 눈(evil eye)"을 매우 두려워한다.

필요한 것들

산시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로서 이들은 가치 있게 대우받아야 하며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시인들에게 내적인 치유를 베풀 수 있고 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안정과 보호를 베풀 수 있다.

산시어로 된 성경, 기독교 자료들이 거의 없다. "예수" 영화와 기독교방송도 산시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코로나19사태 보는 관점' 다른 해석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도하는 것입니다"(톨 라이트 박사, 영국 세인트앤드류스대 신대원 교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존 파이퍼 목사, 미국 디자이어링갓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영국 성공회 소속 신학자인 톨 라이트 박사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를 찾는 건 '자칭 기독교인의 뻔한 반응'"이라고 지적했지만, 미국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 박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건 뻔한 게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라이트 박사는 지난달 29일 미국 타임지에 '기독교는 코로나19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이 글에서 기독교인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결론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어리석은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는 이유가 처벌이나 경고, 표적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희망 없이 기다리는 게 유일한 충고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교회 딜레마...예배금지 주지사 고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집회 금지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미국 목사들이 주지사를 고소하고 나섰다.

CNN은 13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미국연방지방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법무장관, 주내 일부 카운티 당국자들에게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고소를 진행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범불사무소 딜런로그룹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택격리령 등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목사 등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원고는 현지 교회 목사인 딘 모팻, 브렌다 우드, 패트릭 스케일과 교회 신도인 웬디 기시다.

특히 원고 중 한 명인 모팻은 부활절 직전 일요일인 종려 주일에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0달러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뉴섬 주지사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자택격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고들은 이 명령이 종교·연설·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선 일부 현지 교회 신도들이 집단예배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주도 새크라멘토에선 한 교회에서 신도 등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확산 지도에 따르면 14일 기준 캘리포니아 주내 누적 확진자는 2만 4382명, 누적 사망자는 732명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도시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1만여명 중 3분의 1이 이곳에서 나왔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로는 단기적으로 집에 머물며 밖에 나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켈러 목사는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전염되든 말든 상관없어, 불일 보러 나갈 거야"라고 해선 안 된다. 이런 행동은 병에 취약한 이들의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그리스도인이 지역 사회에서 '희망의 불꽃'이 되자고도 당부했다. 그는 "기독교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 타 인종 타 종교인과 협력하며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방법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양극화를 줄일 뿐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될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수칙 550개 소수 언어로

성경 번역가들이 소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번역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성경번역협회의 협력기관인 SIL 인터내셔널은 방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500여 언어로 번역해 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판에 붙이고 SNS로 공유하고 있다. 1934년 설립된 SIL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언어 교육을 지원한다.

SIL 소속 번역팀은 프로젝트 첫 단계로 '손을 씻으라(Wash your hands)'는 문장을 550개 언어로 번역했다. SIL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적절한 건강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태"라며 "방역 수칙을 모국어로 이해시키만 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매체들은 대부분 24개 언어만 제공하며 구글의 번역 플랫폼도 100여 언어만 지원한다. SIL은 인터넷에도 인공지능(AI)과 페이스 북 리서치 플랫폼을 활용해 소수 언어로 번역한 방역 수칙을 올리고 있다. 번역된 수칙은 의료진에게도 전달한다.

SIL의 번역팀원 다니엘 하이트릭은 "의료진이 '손을 씻으세요' '거리를 두세요' 등 핵심 문장을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지 않으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 작은 화면에 몰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무서운 기세로 점유율을 높여가던 스마트폰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메신저의 경우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전통 매체보다 영상 기능이 있는 매체가 약진했다. 기약 없는 재택생활로 인해 사람들의 '연결 욕구'가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조사 기간 동안 '구글 듀오(Google Duo·영상통화 서비스)', '하우스파티(Houseparty·게임용 영상채팅)'의 트래픽은 각각 12.4%, 79.4%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회의와 원격학습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났다.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온라인 원격교실)'을 통해 숙제를 제출하고, 회사원들이 '줌(Zoom·온라인 회의 플랫폼)'으로 회의를 진행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하루 200만번 미만으로 실행되던 줌은 두 달 만에 일일 실행 횟수 600만회를 넘어섰다. 3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다. 또 다른 재택수업·업무용 시스템인 구글 클래스룸, 구글 행아웃 등도 일일 실행 횟수가 200만회기량 증가했다.

온라인 의존 생활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정보 격차' 우려도 커지고 크다. 도시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득 격차가 정보 격차로, 정보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에볼라 치료제로 코로나19 환자 회복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시카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치료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주가는 장외거래에서 16% 이상 폭등하고 있다.

보건뉴스 전문사이트인 스탯(STAT)은 16일 시카고 의대 연구진이 코로나19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단계 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고열과 호흡기 증세로부터 빠르게 회복됐고, 환자 대부분은 1주일 이내 안돼서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113명은 중증 환자였다.

STAT이 입수한 임상결과 등의 동영상에서, 이번 실험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 캐슬린 멀레인 박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환자의 대부분이 퇴원했다. 굉장하다. 지금은 환자가 2명 뿐"이라고 말했다.

멀레인 박사는 "약을 (투약하기) 시작하자마자 발열곡선이 분명히 내려갔다"고 말했다. 특히 "고열 환자가 (렘데시비르 투약 후) 상당히 빠르게 (열이) 감소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환자도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의 대다수는 중증이다. 그들 대부분은 6일만에 퇴원했다. 이는 (렘데시비르)치료 기간이 10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일 이후로 퇴원하는 환자는 아주 적는데, 아마 3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동영상 속 발언은 이번 주에 시카고 의대 교수진들의 렘데시비르 임상결과 토론회에서 나왔다고 STAT은 전했다. 멀레인 박사는 동영상에 실제 토론을 적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지만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STAT은 보도했다.



"코로나19 재난, 하나님의 필요 상기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은 인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탕부 하나님'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 팀 켈러(사진) 목사는 영국 기독교 언론 '프리미어 크리스천티' 등 영미권 기독교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허용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최근 밝혔다.

켈러 목사는 이들 기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이럴 때 하나님은 세상에 '너는 이 일의 책임자가 아니다. 네 운명의 주인은 나다. 네 도움이 필요해'란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모든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끝내겠지만, 재난은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라 말했다.

매주 평균 5300여명이 출석하는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설립자인 그는 코로나19로 교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켈러 목사는 "현재 나는 맨해튼과 퀸즈 사이의 섬에 있는데, 퀸즈는 특히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곳의 모든 골목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노인들이 시신 가방에 실려나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리디머장로교회가 있는 뉴욕은



재택생활이 인터넷 습관 바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생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용법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다시 컴퓨터 이용을 늘렸고, 연결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영상 기능 매체가 약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두 달간의 온라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무, 오락, 메신저 등 3가지 영역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고 7일 보도했다.

먼저 재택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조사 기간 두 달간 웹사이트를 통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각각 27%, 16%가 늘었다. 그러나 앱을 통한 트래픽은 1.1%,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튜브도 웹 트래픽은 15.3% 증가한 반면, 앱 트래픽은 되려 4.5% 하락세를 보였다.

NYT는 스마트폰의 최대 특성인 휴대성이 그 이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에서 모든 일상이 이루어지는 이상 스마트폰



돈의 힘

돈은 16세기 종교개혁을 시동시켰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세우며 공개토론을 요청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면죄부이다. 그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는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돈에 집착하던 중세 로마교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다. 면죄부를 팔던 자들이 가장 우려하던 것은 교회로 흘러들어오던 돈의 흐름이 끊어놓는 여론의 확산이었다.

초대교회 수도원운동은 압박이 사라진 세상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되었다. 수도사들은 안락한 삶의 타전을 버리고 사막과 들판, 그리고 산 속을 찾았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 세상의 유혹이 순수한 신앙에 결정적인 방해가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이 초심을 버리고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 돈의 힘 때문이었다.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수도사들로 하여금 초심을 버리게 한 것이다. 청빈한 삶은 중세에 새롭게 시작된 수도원운동의 모토였다. 역시 그들도 돈의 힘 앞에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기독교가 서유럽을 장악한 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종교적 힘의 확장'으로 오해한 듯하다. 각처에서 흘러 들어오는 돈은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고위 성직자들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국가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교회는 돈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돈의 힘을 알고 있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을 맛본 뒤 더욱 많은 돈을 취하려는 욕망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세기 전후에 발생한 흑사병이 유럽사회를 강타했다. 3분의 1, 지역에 따라서는 70%의 목숨을 앗아갔다. 노동력이 사라짐으로서 봉건제도의 축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이와 같이 변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생산'에 부응할 수 없었기에, 서유럽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도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가 도래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진 그 자체가 혁명적 변화였다.

시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수직구도 안에서 막강한 힘을 추구하던 로마가톨릭교회와 대조적이었다. 이미 수평구도의 적합성에 익숙해가던 서유럽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인격적 평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수 있었다.

돈과 교회

돈은 '생산'을 위하여 자본이 필수적이었다.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제조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무엇보다

쏟아 부었다.

흥미롭게도 지오반니와 교황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였다. 메디치은행의 일반인이 아니라 그 당시 상류의 부자들, 즉 귀족과 성직자 등만 고객으로 삼았다. 그는 교황청이 필요한 돈을 원활하게 공급하면서 교황의 신뢰를 얻었다. 1414년 독일 콘스탄츠에서 탄핵 받은 대립교황 요한 23세(Antipope John XXIII, 1370-1419)의 재정 자문이었던 그도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이후 그는 교황청의 재정업무로 전담하면서 유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는 과정을 주도한 것이다. 그는 돈 앞에 공평하기에 신분과 상관없이 빛을 쬐는 사람이 반드시 갈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

푸거가 결정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 신성로마황제 프레데릭 III(Frederick III, 1415-1493)의 조카였던 오스트리아의 대공 지기스문트(Archduke Sigismund, 1427-1496)와 금전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대공은 언제나 낭비가 심했으므로 중요한 전쟁이 치르면서 대공 재정을 겪기도 했다. 자금이 필요하자 제법 가치 있는 은광을 담보로 푸거로부터 거액을 대출 받았다. 결국 푸거는 은광을 소유하게 되었고, 채광된 은을 팔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 후로도 그는 힘이 있는 정치인들과 밀착 관계를 맺었다. 황제 맥시밀리안 1세(Maximilian I, 1459-1519)의 개인 은행을 맡아 독일에서 로마로 가는 돈을 담당했다. 그는 자신으로부터 거금을 빌려간 카를 5세(Karl V, 1500-1558)를 담당하게 대했다. 터키가 헝가리를 침범하자 카를 5세에게 전쟁을 치러 막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지경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유럽 최고의 은광을 지키려고도 도 때문이었다.

돈을 가진으로 막강한 힘을 지녔던 푸거는 교황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교황을 보호하는 스위스 용병을 위한 금액을 지불하였고, 줄리우스 2세(Julius II, 1443-1513)의 교황 선출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기도 하였다. 교황은 푸거에게 교황의 화폐를 제조하도록 하였다. 은을 생산하던 푸거는 그 후로도 계속 교회의 화폐를 제조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푸거가 교황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보상이 있었는데,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 죄로 여겨던 고리대금업을 1515년에 교황 레오 10세(Leo X, 1475-1521)의 교서로 인해 합법화된 것이다. 신학논쟁이 벌어졌다. 루터를 대항하는 논쟁으로 잘 알려진 요한 에크(Johann von Eck, 1486-1543)가 직접 나섰다. 그는 오직 약한 의도도 채무자를 상대할 때에만 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에크의 상대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개념을 거듭 강조하였다.

결과는 무승부였으나, 실상 교황에게 칼자루가 쥐여 있었다. 결국 돈을 빌려줌으로 이자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 새로운 교리가 탄생하였다. 그 뒤에는 막대한 돈을 소유한 푸거가 있었고, 황제와 교황을 움직일 수 있었던 그로 인해 자본주의가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아무쪼록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대항하던 중세 말 교회는 돈의 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8)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패러다임의 변화

16세기 종교개혁의 전야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봉건사회의 구도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서유럽은 이미 11세기 십자군운동 전에도 동방세계와 활발한 무역의 통로를 열어 놓았다. 향신료, 설탕, 실크, 염료 등 새로운 물건을 수입하였고, 북부 이탈리아의 모직물과 중부 유럽의 은 등을 동방으로 수출하였다. 그러나 십자군운동 이후 본격적인 무역이 시작되면서 교류하던 물건의 종류와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결과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 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열망이 늘어났다. 또한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찾게 되었다.

기존의 봉건제도는 토지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은 영주와 농노의 관계에서 물자를 직접 생산하였다. 영주들은 전통적인 노동 구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많은 '생산'이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특히 14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농노들이 장원 제도를 거부하고 그 곳으로부터 뛰쳐나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돈의 힘이 가져온 결과였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구도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사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철저한 수직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즉 모든 인간관계는 왕족, 귀족, 평민, 그리고 노예라는 계급질서 속에서 영위되었다. 이들 모두 태어난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 중 일부는 상승된 계급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언제나 수직구도의 한계 속에서만 가능하였다.

새로 도래한 수평구도는 한 개인이 지닌 고유한 자유와 평등이 지닌 가치를 존중하였다. 힘으로 억압하는 자들과 그 힘에 의해 억압당하는 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도록 하되, 이자를 얻어냄으로써 부를 늘리는 자본가들이 등장했다. 물론 전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금융의 시작이라 간주되는 고리대금을

통해 이윤을 챙겼던 업자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 독특한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22:25, 신명기 23: 19-20, 예수경 18:8, 누가복음 6:35 등에 근거하여, 고리대금 자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여겼다. 심지어 대금업자로 판단된 사람을 교회에서 파문하기도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중세 신학자들은 고리대금업자의 탐욕을 지적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적질로 간주하였다.

그렇다면 중세 말 교회는 자본주의와 함께 돈을 가진 자의 힘의 등장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답을 얻기 위해 먼저 15세기 이탈리아의 메디치가문의 은행에 대하여 알아보려한다. 지오반니 데 메디치(1360-1420)는 자신의 막대한 상속 재산과 아내의 결혼지참금으로 은행의 재산을 키워 대단히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르네상스 예술의 중흥을 위해 많은 돈을

는 상대를 엄선하였다. 아무쪼록 16세기 종교개혁을 앞두고 교회와 돈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사회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면서 돈의 영향력을 지닌 자와 교회의 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돈을 가진 자의 힘

자본주의는 새로운 힘을 등장시켰다. 출신과 신분에 따라 결정되던 과거와 달리, 돈을 가진 자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그 중심에는 야콥 푸거(Jakob Fugger, 1459-1525) 라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다. 그는 독일 농민 출신이었다. 그의 가족은 시장에서 직물 매매를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14세에 부친을 여의고 성직자가 되려 한 그였지만, 결국 유럽에서 독보적인 자본가로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중세의 수직관계의 구조에서 태어났으나, 그 틀을 깨고 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

흑사병으로 노동력 사라져 봉건제 무너지고 자본주의 도래 돈 있는 자와 교회 긴밀 관계...1515년 고리대금업 합법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목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전 8:30 사백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일예배: 오후 08:45 사백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k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사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사백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사백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사백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사백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 (516)387-940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사백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 안무공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청년부 예배 오후 8:30분 사백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사백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양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사백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7: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은,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사백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사백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리더십 코멘터리 (109)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코로나 팬데믹 시대, 위기 속에서 전할 메시지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로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공황장애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아주 심한 불안상태를 의미한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심한 불안으로 인해 가슴이 뛰기도 하고 호흡곤란이 오기도 한다. 때로 어지럽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생활이 예전과 같지 않다. 지금까지 나타난 증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는 사소보

짜어지고, 각종 모임이 취소되고, 생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경제가 마비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되었다. 이제 세계적 사건이 되어 버린 코로나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일반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지금은 영적리더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재하신 전염병을 통해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라

코로나사태로 미국의 갑부들은 인구밀도가 높은 뉴욕 등 대도시의 고급아파트

안전지대 되시는 하나님 의지, 주변도 안전하게 말씀 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섬김 운동 전개

다도 훨씬 더 감염력이 강하고 증식도 빠르게 되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가벼운 증상이나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비율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달라붙는 단백질(ACE2)이 폐와 소장의 상피세포에 분포할 뿐만 아니라 입과 코, 그리고 심지어 안구점막세포에도 있기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감염될 수 있고, 또 전 세계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오늘날의 특징으로 인해 감염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팬데믹(Pandemic, 전염병 세계대유행)이 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전 세계를 뒤흔든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섰다. 나비효과라는 말처럼 우한에서 생겨난 바이러스감염이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세계인의 삶과 활동을 뒤흔드는 강력한 태풍이 되었다.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세계를 뒤흔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 간의 왕래가

를 버리고 휴양지의 별장으로 숨어들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부자들이 수십만 달러를 들여 안전한 대피소를 설치하거나 병커를 만들고 있다. CNBC 방송은 미국의 부유층들이 수영장이 딸린 호화 지하 대피소를 사들이고 외딴 섬으로 피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 안전지대를 찾아나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있는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나만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리더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코로나19로 염려와 불안감이 가득하지만 리더는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

코로나19바이러스의 암울한 시대에 영적리더는 세상에 대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리더는 시대를 진단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며, 영적 삶을 인도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국가적으로 정치인들이 위기시대에 대안과 지침으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듯이, 영적리더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영적 가이드를 제시할 임무가 막중하다.

나날이 바이러스가 생활 속으로 침투되면서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대공황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위기가 직장과 삶의 생활터전, 교회공동체에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영적리더는 우왕좌왕하고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선한 목자가 되어 믿음의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사망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증거 해야 한다.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를 의지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위로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파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 풍랑 속에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이다. 폭풍우속의 바다를 항해할 때,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주님의 리더십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비관하며 절망하던 이사와와 함께 하신 약속한 메

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혼란한 시대, 영적리더의 미션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세상의 소금과 빛인 교회가 갈 길은 무엇인가? 전염병 확산의 위기와 경제적 추락이 어이없는 가운데 리더들은 절대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혼란가운데서도 영적리더는 정신을 차리고 진리의 끈을 단단히 매어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의 선구자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스바 광야에서 외치는 사무엘처럼, 수문광장 앞 에스라처럼, 예루살렘의 베드로처럼 교회 회복을 외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말씀 운동과 기도운동, 회개운동과 섬김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당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지침을 설계하고 선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리더의 미션이다.

sondongwon@g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고난의 때에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준비한 성찬에 참여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집에 머물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 상황이 정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 높아만 가는 확진자, 사망자 수의 연이은 보고, 정지된 경제활동, 사회적 거리를 두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기본욕구인 생존 욕구와 사회적 욕구에 직결되기 때문에 불안함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고난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다양하다. 고난은 크게 하나님의 심판 혹은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 사탄이 주는 것, 사람이 자초한 것 3가지로 해석된다. 현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 혹은 어려움을 통해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고 경고한다고 보는 경우다. 카톡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동영상처럼 세례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뉴욕의 한복판에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이 지닌 것과 같은 견해다. 유산과 동성애 등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자초한 행동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박쥐인지 천갑산인지 모르나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숙주인 야생동물을 먹은 것이 계기라고 보는 것이다. 그 결과로 중국 사람들을 위시한 아시아를 혐오하는 범죄가 종종 보도되었고 그런 인종적 혐오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한다. 목회자들이나 토크 라이드를 비롯한 학자들도 코로나바이러스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계신 것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상황을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으로, 아니면 인간이 자초한 고난으로 인식하는지에 상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위로와 힘을 주신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면 우리를 돌아보기에 지금처럼 좋은 시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바쁜 일상이 사라지고 종일을 집에 있는 시간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취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늘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신, 구약 곳곳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어려움이 사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활동을 규제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또 인간의 잘못으로 시작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를 격려하신다.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람을 지칭하는 네 단어 중에서 "약한 피조물"을 일컫는 단어이다. 사람의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다. 이런 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은 생각하시며 돌보신다. 예수님이 분인인 "인자(Son of Man)"라고 칭하실 때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신 그 분이 세상에 오실 때 강한 모습이 아닌 피조물의 연약함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즉 우리의 연약함과 동일한 육신의 모습을 지니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지닌 재림자가 형벌로 그 삶을 마쳐셨다면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약한 존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시(토)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차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일용복제(월-금): 오전 5:30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1:20 영어권(월-토): 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 전화 팩스 경음, Tel: (213)210-6890 /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일모임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복제):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kbc.org / www.kbc.org /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에속한가족교회 협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찬아-오우사/30분 사역장: 1. 여성사역, 2. 청소년사역, 3. 영성사역, 4. 네트워킹 사역 지역: 1. 로스앤젤레스, 2. 가렛사역, 3. 알파사역, 4.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fisfamily.org / Tel: (213) 700-9928 /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사제기도시간: 365일 24시간 모은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 3229 N. Verdugo Road, Glendale, CA 91208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0성령이 임하여" 오전 9:30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 3416 W. 1st St., LA., CA 90004



목회서신

죽음의 도시로 가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도시로 가고 있다. 중국의 우한, 한국의 대구, 미국의 뉴욕 등의 도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는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감염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죽음의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들어간 의료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런데 2000여년전에 죽음의 도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스스로 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한다. 왜 그 날을 승리의 입성으로 부르게 되었을까? 누가 그 날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그 말은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분위기 때문

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초라한 나귀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셨다. 긴장하게 키가 크고 위엄 있는 갈퀴를 휘날리는 말은 승리가 타는 동물이지만 키가 작고 불품없는 나귀는 승리를 위한 동물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비천함을 표현하고 화친을 요청하는 표시이다. 예수님은 화해의 사신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죽음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셨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경주마처럼 씩 없이 달려간다. 우리는 늪뚱한 흰말을 타고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기대하며 고향으로 입성하는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군

림하는 꿈을 꾸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이 재난의 시기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신을 회개해야 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재난 중에 버려두신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물질에 추종하였고 개인의 명예와 평안을 추구하고 달려왔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여도 성도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의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님은 종려주일에 죽음이 기다리는 사지로 향하여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못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드리우기 위해서 사지로 들어가셨다. 그래도 이 세

상이 살만한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약 500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우한으로 들어갔고, 한국에서도 950여 명의 의료관계자와 300여 명의 구급대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 대우로 갔으며, 지금 미국에서도 수많은 의료관계자와 봉사자들이 뉴욕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들이 기독교인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성도는 비천한 모습까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지까지 달려가는 사람이다.

dik0184@yahoo.com

효사랑선교회 캠페인

“부모님께 전화하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효된 가운데 각종 사업과 교회와 작은 모임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장 어려운 분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연로하신 시니어들이 아닌가 한다. 아파트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웃과 교제도 어렵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지루하고 외로운 데다가, 거의 매일 나가시던 양로보건센터마저 문을 닫으면서 그곳마저도 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시스템 사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시니어는 나의 부모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하셨고 고통 가운데 낳으셔서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하셔서 오늘날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시다.

효사랑선교회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회복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성경적 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함으로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게 하루를 보내야 하는 부모님께 전화하기이다. 자녀의 목소리를 매일 듣는 부모는 삶은 활기가 있다. 내게도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 자녀가 있구나. 그리고 노인은 ‘밤새 안녕’이란 우리 속담이 말하듯이 밤사이 평안한 밤을 보내셨는지를 확인하는 전화이다. 일주일에 한번 모시고 식당에 식사대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꼭 기도제목도 드려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신앙인의 삶으로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용돈을 드리면 더욱 좋지만 드리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도 행복해 하신다. 효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25). 매일 부모님과 전화하는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 하리라”고 약속의 계명을 주셨다. 부모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성경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매일 전화를 드리도록 하자! 내 목소리를 듣고 힘을 얻으시는 부모님을 기억하자! 놀라실 거다. 좋아서 하시는 표현으로 ‘바쁘네 무슨 전화냐? 나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나 잘 있고 내 걱정마라’ 필요한 것 없으면 없다고 하신다. 그만큼 자녀의 목소리는 부모님에게 큰 힘과 활력소가 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서 모두가 별별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높여주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께 목소리를 들려주어 기쁨과 감사로 면역을 높여주어 바이러스가 얼씬도 못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사시도록 힘이 되어 드리자.

성경적 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효자요 효녀이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하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가정 나를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부모를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락처: (562)833-5520 김영찬 목사

투 고 시

우리 목사님

새벽의 별처럼 밝은 빛 간직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목사님 정결한 삶의 본이 되신 주님 닮은 귀하신 분

고단한 이민의 삶 서러운 이민의 삶 한결같은 어우름 섬세하신 사랑으로 주의 생수를 길어 올려 주의 품으로 인도 하네

오금옥 선교사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말씀으로 하늘씨앗 심으시어 정성으로 보살피고 주의 사랑 행기시어 일군으로 모으셨네

[편집자주: 본지 주최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단골 참석자였던 오금옥 선교사가 어느 해 세미나에서 발표한 고 장영춘 목사님에 대한 시]

미국내 한인교단 총회 연기/취소 속출 KAPC 화상총회...미주 한인교단 사상 처음

코로나19 사태로 미주내 한인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제 44회 정기총회는 5월 12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줌(Zoom)을 이용한 화상총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KAPC 총회는 지난 20일 준비위원회와 함께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APC 제 44회 화상 총회는 미주 한인교단 총회 역사상 처음이다.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제 45회 정기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KPCA총회는 5월 5일부터 올랜도에서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

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해외 한인장로회 제45회 총회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직면하여” 연기했다.

전 총회장단의 45회 총회연기 합의에 따라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개 노회 중 15개 노회가 1년 연기에 동의했다. 45회 총회는 1년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는 4월 20일부터 예정됐던 총회를 8월 10일부터 13일까지로 연기했다. 장소는 동일하게 뉴욕에서 열린다.

미주성결교회는 5월 4-8일 캐나다 켈거리에서 제 41회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9월로 연기됐다. 장소는 동일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는 5월 5일 하와이 개최로

예정돼 있었던 제28회 미주자치연회를 오는 9월로 잠정 연기했다.

차기 실행부위원회는 오는 7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연회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연회 일정 및 장소는 실행부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는 5월 18-21일 뉴욕에서 예정됐던 한인총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인총회에서는 새로운 총회장 선출 및 총회의 성격과 구조 변경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향후 한인총회가 열릴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4월 21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도 5월 휴스턴 총회를 9월로 연기했다.

미주남침례교회한인교회 총회

는 오는 6월 8일부터 올랜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 39차 정기총회를 취소했다.

총회는 3월 27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실행위에서 정기총회를 취소하고 내년 총회 때까지 전 임원이 1년 동안 재임하도록 했다.

미국교단들의 정기총회 취소도 이어졌다.

연합감리교회(UMC)는 5월 5일부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예정인 2020년 총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총회는 총회 분리 등을 결정할 주요 안건을 다루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년 뒤로 밀어졌다. 2021년 총회 장소와 시기는 향후 결정된다.

미국내 최대교단인 남침례교는 6월 9-10일에 올랜도에서 예정됐던 2020 SBC 연례총회를 취소했다. 남침례교 총회가 취소된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스포칸한인교회 제9대 담임 문은배 목사

워싱턴주 스포칸에 위치한 스포칸한인교회 제 9대 담임목사로 문은배 목사가 위임됐다.

지난 3월 29일 위임예배를 준비 중이었지만 코비드19로 인해 위임예배는 무기한 연기됐다.

문은배 목사는 1969년생으로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신학석사(Th.M)를 취득했다.

2003년 4월 예정통합 평양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2004년 도미, 폴립비아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학위(D.Min)를 취득했다.

목회경력으로는 1999년 복원교회, 2004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 애틀랜타 인터내셔널시온교회, 2005년 애틀랜타 열린교회 등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다. 2007년 차타누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2020년 3월 스포칸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가족사항으로는 아내 이양희 사모와 가현, 시현 두 딸이 있다. (기사제공: 스포칸한인교회)



제 9대 담임 문은배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전문가초빙 자기돌봄 온라인 특강 LA온누리교회, 24일부터 체력운동 8회 시작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돌봄(Self-care) 온라인 특강’이 열린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가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확찐자 예방 프로젝트’와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한 ‘함께라서 다행이야’를 무료 온라인

강의로 준비한 것이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사용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몸 건강을 위한 ‘확찐자 예방 프로젝트’는 24일부터 5월 19일(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로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배 코치를 초청했다.

마음 건강을 위한 ‘함께라서 다행이야’는 22일과 2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됐다.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마음챙김(mindfulness)을 통해 가족관계를 ‘짐’이 아닌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강의는 결혼과 가족상담(MFT)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심 카운슬러가 맡았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LA 온누리교회 측은 “자가격리 권고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단조로운 실내생활은 운동부족, 사회적 관계단절로 스트레스와 불안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함께하는 운동과 심리세미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지금 겪는 어려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강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YuDoGo.com)에서 등록을 하면 이메일로 접속번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YuDoGo.com: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이메일로 ZOOM 접속번호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LA온누리교회>

일상칼럼

(8면에서 계속)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난이기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처럼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전능자의 손길

을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 부활의

아침과 함께 이 질병으로 인한 모든 어두움이 서서히 걷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lpyun@apu.edu

뉴저지교협, 온라인 부활절연합새벽예배 강사 원팔연 목사, “예수 부활 하셨네” 주제

뉴저지교협(회장 장동신 목사)이 12일 온라인으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드렸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4월 8일 오전 10시 ZOOM 화상 미팅을 통해 정부 발표 경기부양책 중에 교회와 목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명하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온라인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밝혔다. “예수 부활하셨네”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강사 원팔연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주 바울교회 원로이며 2016년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강사였던 원팔연 목사는 하루 전인 11일 녹화영상을 보냈다. 원 목사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며 기적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라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존재로 변화돼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생의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말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완전히 헛된 것”이라며 “부활을 전파하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장동신 목사 사회로 기도 배광수 장로, 성경봉독 송호민 목사, 특송 신현미, 설교 원팔연 목사, 합심기도 홍인석 목사(부활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유병우 목사(코로나 19 퇴치와 극복을 위해), 봉헌 기도 김대호 목사, 광고 육민호 목사, 축도 양준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교협이 주최한 온라인 부활절연합예배에서 강사 원팔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가 온라인 부활절새벽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뉴욕교협, 50교회에 마스크 2천개 전달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이 4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회원교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줬다. 이 마스크는 Solblanc Design에서 3천개를

기증한 것으로 교협은 50개 교회에 2천개, 병원들에 1천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총무 이창중 목사와 부회계 안경순 목사가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업무조정 현재 48% 응답, 6월 조사 재개 준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업무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조정된다. 미국 연방 상무부 윌버 로스(Wilbur Ross) 장관과 미국 인구조사국 스티븐 윌링엄(Steven Dillingham) 국장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업무 조정 관련 성명서에서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매일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가구들이 응답했으며 현재까지 7천만 가구 이상이 응답했고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미 인구조사국은 스미국의 대중과 인구조사국 직원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연방, 주(state) 및 지방정부의 지침 이행 △모든 지역사회와 완전하고 정확한 인구수 집계 등의 목표를 위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업무를 조정한다고 언급했다. 인구 조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19 발발로 인해 지난 3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현장 데이터 수집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6월 1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현장 데이터 수집활동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대중과의 모든 상호 소통,

가구 정보 수집, 사무 및 처리 활동을 포함한 대면 활동에는 직원 및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포함된 지침이 적용된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인구조사국은 연방하원 할당 의석수, 선거구 확정 정보 및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지출의 배분 척도가 되는 기타 통계 데이터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장시간의 철저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하원 할당 의석수의 최종 제출기한을 1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화 해줄 것을 연방의회에 요청 중에 있다. 이 계획에 의거해 인구조사국은 현장 데이터수집 및 자가 응답기간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연방하원 할당 의석수를 2021년 4월 30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선거구 확정데이터를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문의: (301)763-3030/(pio@census.gov) (기사제공: 2020년 인구센서스)

뉴욕교협도 라이브영상으로

한편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도 새벽 6시 뉴욕그레이트교회 방송팀의 지원을 받아 라이브 영상으로 새벽연합예배를 드렸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새벽예배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했다”고 11일 알린 바 있다. 예배는 박진하 목사 사회로 기도 손성대 장로,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양민석 목사, 봉헌기도 이창중 목사, 축도 김영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4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부활 후 가장 먼저 찾은 제자공동체는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

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위로해주시다. 우리 모두 주의 성령을 받아 이 위기를 기독교의 부흥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4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까지 “뉴욕 일시 중지(New York State on PAUSE)”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주가 3월 22일부터 시행한 “뉴욕 일시 중지” 명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모든 비필수 사업체의 폐쇄, 모든 규모의 비필수적인 모임 금지, △최소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예배도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해오고 있다. (유원정 기자)

교계 게시판

장정순 목사 별세

UMC 원로 장정순 목사(사진)가 4월 13일 새벽 3시 유니언테일 소재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2세. 고 장정순 목사는 한신대를 졸업하고 부산 중앙교회와 서울보문제일교회 담임목회를 하다 1978년 도미했으며 시카고 서북교회, 퀸즈 중앙제일교회를 담임하다 1999년 은퇴했다. 2003년 뉴욕원로목사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을 역임했다. 고 장정순 목사는 강정화 사모와 사이에 2남2녀가 있으며 두 아들은 장동호 목사와 장동일 목사다. 장례일정은 코로나19 사태로 환송예배 없이 장지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현 목사 별세

뉴욕목사회 감사 정재현 목사(사진)가 4월 3일 롱아일랜드 소재 병원에서 별세했다. 정 목사는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상태였다. 언론인으로도 활동했던 고인은 뉴욕목사회 47회기와 48회기 감사를 역임했다. 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비상사태로 장례순서가 밀려 고 정재현 목사의 장례식 일정이 유동적이다. 또 화장장에서 1회 예배를 드리며 고인이 마지막으로 출석했던 교회인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원로목사가 예배를 집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P 일자리 제공 돕기

CMP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연락을 바라고 있다. 이력서 정정이나 이력서 템플릿 필요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CMP는 1972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며 직업 및 교육스킬, 관련 지식습득, 리더십 개발 및 창업 기회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경력개발의 목표를 갖고 있다. KACF 한인커뮤니티재단의 지원 및 협력으로 Mobile Job Project를 운영한다. ▲문의: Jae Kim(Jaeunkim@cmpny.org)

뉴욕가정상담소 CAP 펀딩 받아

뉴욕가정상담소가 2020년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범죄 피해자 권익의 주’를 맞아 지역사회 인식 프로젝트 펀딩(Community Awareness Project Funding)을 받게 됐다. 뉴욕가정상담소는 미국 법무부 소속, 법무부 프로그램, Office of Victims of Crime(OVC)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National Association of VOCA Assistance Administrators(NAVAA)에서 자금을 받아왔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실시하는 2020년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범죄 피해자 권익의 주의 활동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와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뉴욕가정상담소 24시간 한국어 핫라인(718-46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www.kafsc.org

사우스베이지역 520명 노인들에 선물 코이노니아선교회, 독거노인 섬김이 계속

절기마다 다양한 행사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는 매년 이맘때 노인들을 모시고 명소로 나들이를 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를 취소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격리로 지쳐있는 노인들에게 물품을 선물하고 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 가운데 코이노니아선교회가 섬기는 노인들은 520여명이다. 이미 1차로 350명에

게 물비누와 료선 그리고 간식을 제공했으며, 남은 170명의 노인들에게는 성금요일 이전에 선물을 전달했다. 박종희 목사는 “코로나19가 언제 약화되고 사별될 것인지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아 그런지 노인들은 상당히 불안해한다. 언제나 당당하고 여유롭던 노인께서 저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요즘 같으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며 쳐다보는데 그 눈빛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심연(深緣)-깊은 사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무 뒤에 숨지 않고 곧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숨길 것도 숨기는 것도 없어야 좋은 관계, 깊은 사귀이 된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비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 깊은 곳에 생각으로만 담겨있는 것까지를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깊은 사귀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는 이미 중국을 넘어버렸다. 미국의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2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다 비상이 걸렸다. 당장 발발에 큰 불이 떨어지니 발병이 시작된 중국은 안중에도 없다. 각국의 사정이 그만큼 심각해진 것이다. 인권운운하며 개개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급속도로 발생하는 확진자로 인해 한국의 대응을 따라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더니 코로나19 앞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 윤리도 도덕도 무시되기 일췌가 되었다. 대구의 신천지교인이었던 31번 확진자는 연일 도마에 오른다. 대량확진의 빌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장입원을 기록하며 아직도 거기에 거기를 되풀이 하는 까닭이다. 감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나 그의 행적이 CC-TV 등을 통한 조사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어차피 밝혀질 것이니 본인이 밝혔으면 좋았으련만 이제 좁은 그가 진실을 말한다 해도 그대로 믿어질지가 의심스럽다.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 때 좋은 관계는 절대 형성되지 못한다. 당연히 깊은 사귀는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오래된 것에만 늙을 노(老)를 붙이지 않는다. 노인(老人) 즉 늙은이라는 표현뿐 아니라 좋은 관계나 깊은 인연에도 늙을 노를 사용한다. 남편을 노공(老公) 아내를 노파(老婆) 오래된 친구를 라오팡우요(老朋友) 심지어는 아들들에게도 노대(老大) 노이(老二)라고 부른다. 속임이 없고 스펀이 없는 관계, 감출 것이 없고 가릴 것이 없는 사이여야만 깊은 사귀이 가능하다.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와의 화해(和解)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통해서만 즉 자신을 속이는 것이 없어야 자기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다. 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벗은 몸을 보이는 부끄러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백이 나와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주어서 먹었다거나 뱀이 꼬여서 먹었다는 변명과 핑계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전제국가에서는 왕을 무치(無恥)라 했다. 왕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상식이나 윤리를 초월한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사람도 자기와 화해를 이루게 되면 거침이 없어진다. 왕이라는 존재가 지니는 무치와는 정반대의 이유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어길 일이 없게 된다. 사람의 울무가 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는다. 진리로 인한 자유 안에서 거침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초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자기 성찰을 통한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심연 즉 깊은 사귀이 가능해진다. 낮의 말을 새가 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밤의 말을 쥐가 들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양심에 꺼릴 것이 없으니 누구에게나 겸손하며 떳떳할 수 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너무도 잘 아신다.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 화해를 이룬 자들과 사귀고 싶어 하신다. 적당히 흥남만 내는 사귀이 아니라 깊은 사귀이로 생명의 나무의 열매조차 아끼워하지 않으실 그런 사귀이를 원하신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자기와의 화해를 이루어 어떤 결점까지도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내고 그 결점을 주님이 덮고 가려주시기를 기다리는 자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바라고 기릴 만한 사람을 만나 깊은 사귀이를 이를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심연 즉 깊이 사귀 수 있는 인연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히 알자. 그런 갈망은 나와의 화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hanmackim@hanmail.net



코이노니아선교회는 520여명 독거노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코이노니아선교회는 독거노인 섬김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박종희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310)508-2733, 이메일: koinoniamission@live.co.kr (기사제공: 코이노니아선교회)

'코로나19 시기, 온라인은 열려있다!

TGC, 온라인에서 가능한 교회 사역 아이디어 제공

디지털 세계에 그물 던지기

2020년 3월 전 세계는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자가 격리,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 직장인은 이메일, 컨퍼런스콜, 온라인 영상 회의로 소통하며 재택근무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부들은 식사준비와 자녀교육으로 분주하고, 자녀들은 개학이 연장되면서 집에서 헤드셋으로 친구와 대화하면서 게임을 한다.

미국은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해 현재 14만2천 명을 넘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했고, 주별로 250명에서 50명 이상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최근 미 행정부는 앞으로 잠정적으로 2-5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미국 교회들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는 그 본질적 기능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디지털 리소스들을 활용해야 할까?('Corona 19' and Digital Church?)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각 교단 총회, 선교단체, 기독교 대학 등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미 남침례교출판사 라이프웨이(Lifeway)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리소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https://ministrygrid.com/coronavirus>). 휘튼대학교와 빌리그래함센터와 새들백교회는 함께 웹사이트를 개설(<https://coronavirusandthechurch.com>)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팟캐스트, 웨비나(Webinar)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살전3:10).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도행전과 서신사에서 신약 교회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했다. 신약교회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

교회도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하게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이나 스카이프(Skype) 앱, 구글 행아웃(Hangout) 등을 이용해 각자 집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비록 화면이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주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

새들백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약 1,000개 온라인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소그룹이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소그룹별로 준비된 질문지 내용으로 40분 정도 나누는 방식이다.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교회 예배당으로 유입되고 세례를 받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에게는 전화심방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한다면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었다(행11:28). 안디옥교회는 본인들도 힘들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행11:28-30).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행11:26).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세상은 탐욕, 이기심, 자기중심성으로 충만하다. 복음으로 죄의 바이러스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교회에 나타나는 증상은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다. 복음은 신자들에게 하나님나라 시민으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현하며 세상 문화에 맞서게 한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셨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눅5:4-6). 21세기는 디지털 세계(digital world)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전통적 방법만을 고수하지 말고 깊은 곳인 디지털 세계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디지털 세계에

1. 온라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했다. 우리는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대답으로 특정 지리적 '장소'보다 '영과 진리'(in the Spirit and in true) 안에서 아버지(the Father)께 예배드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눅4:20, 23-24).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다. 예배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가 가능하다.

재난의 상황에서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모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예배형식을 존중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오전에 온 가족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평안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볼 수 있다. 예배당 안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정, 골방, 직

2.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각 교단 총회, 선교단체, 기독교 대학 등에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미 남침례교출판사 라이프웨이(Lifeway)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리소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https://ministrygrid.com/coronavirus>). 휘튼대학교와 빌리그래함센터와 새들백교회는 함께 웹사이트를 개설(<https://coronavirusandthechurch.com>)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팟캐스트, 웨비나(Webinar)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웨비나는 웹 세미나의 줄임말로 공간적 제약 없이 여러 사람이 소통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다. 재난의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들은 재정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필요하다. 텍사스침례교단(BGCT, SBTC) 홈페이지에는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대처, 예배 생방송 방법, 디지털 목양, 디지털 소그룹, 교회학교 자료, 홈스쿨 자료 등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작은 교회도 긴급 상황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카카오톡 TV 같은 플랫폼으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다. 카카오톡 라이브 특 기능을 사용하면 최

대 30명까지 생방송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프리즘(PRISM Live Studio)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다. 줌(Zoom)은 무료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최대



3. 온라인 소그룹을 시도하자

100명까지 서로 얼굴을 보며 모임을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북미,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화상회의 앱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의 얼굴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바울이 얼굴보기 원했던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

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갔다. 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 소그룹(다락방, 목장, 구역, 목장, 셀 모임)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리소스를 선용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재난의 상황에서 무슨 온라인 소그룹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다. 재난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한다. 미국 대학들은 2020년 봄 학기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를 불문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4. 온라인 합심 기도에 집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출17:8-11).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의 기도 손이 올라가야 한다.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승리할

온라인예배도 영과 진리로... 디지털 자료 공유 소그룹, 합심기도, 구제선행 모두 온라인 가능

수 있다. 미국은 3월 15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교회가 연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싱가포르의 한 교회는 COVID 19:00 기도회 제안하고 매일 오후 7시에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5. 온라인 헌금으로 선행에 동참하자

세계적 큰 흉년(a great famine over all the world) 때 문에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

빠르게 적응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은 모두 30년이 안 되는 신생 기업들이지만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go and make disciples)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디지털 세계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야 한다.

신앙상담

(5면에서 계속) 바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앙 안에서 자유인이나 노예

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신앙공동체내에서 이러한 구별이 점차 사라져갔으며 바울은 빌레몬의 이런 노예 오네시모를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의

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애하는 형제로서 받아들이시라." 로마법은 노예들 사이의 결혼

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교인들 간에는 노예들 사이의 결혼도 자유인들 사이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를 불문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코 외모를 취하거나 차별대우하는 일들이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중랑구 왕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영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무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젊은이들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8-900, Fax: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1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 (82)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시로3길 50-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1842-6881, Fax: (02)1842-6882 (136-3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5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3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문동 302-67 (140-031)

“교회당예배 그리웠다” 80%

온맘닷컴, 온라인예배 드린 310명 대상 설문

온맘닷컴(대표 김택환)은 12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와 전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크리스천 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해선 6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온라인 예배를 라이브 예배로 드렸다고 답한

응답자는 39%, 녹화 예배는 20%로 조사됐다. 교회의 온라인 예배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57%로 가장 많았다.

현금은 어떻게 했을까. 예배가 끝난 후 입금했다는 응답자는 26%, 예배 중 입금했다는 응답자는 9%로 조사됐다. 반면 ‘나중에 교회에서 할 생각이다’가 36%, ‘교회에 갈 때만 낼 생각이다’는 10%였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으로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점(31%)을 가장 많이 꼽았

다. 단점으로는 21%가 공동체를 의식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공동체 활동이 없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20%),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19%)는 답변도 있었다. 응답자의 80%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내 교회당에서의 예배가 그리웠다고 답했다.

김택환 대표는 “작은교회나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회당 예배가 그리웠다는 것에서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성도와 목회자 간의 스킨십이 목회의 중요한 축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 채플 수업은 어찌나...

온라인 수업대처 쌍방향소통 등 방법 고민

대학들이 1학기 강의를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채플 수업을 하는 미션스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학기 채플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대학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숭실대는 1학기 채플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처음에는 4월말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학이 1학기 강의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해 계획을 바꿨다.

조은식 숭실대 교목실장은 “한 번에 700-1000명이 들어오는 채플을 진행하는 건 위험 부담이 있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국가적 위기에 만큼 양

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도 1학기 전면 온라인강의가 결정됨에 따라 채플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이다.

온라인강의 기간을 다음 달까지만 연장한 대학들도 일단 온라인으로 채플을 시작했다. 연세대는 다음 달 12일부터 대면 강의를 하기로 예정돼 있지만, 채플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여대와 명지대는 개강 후 1학기 전반부는 온라인으로, 후반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 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학생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도 마련됐다. 연세대는 채플이 끝

난 후 3시간 이내에 50-100자의 짧은 소감문을 쓰게 했다. 명지대는 채플 내용에 관한 과제를 내준다. 두 학교 모두 소감문이나 과제를 제출해야 출석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구제홍 명지대 교목실장은 “비기독교인 학생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유명 기도문을 활용하는 등 형식 면에서 온라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과 교회가 모두 온라인 미디어를 선교에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성 연세대 교목실장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강의나 예배를 드리는 데서 나아가 온라인을 선교와 예배, 성도 간 교제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채널로 받아들이야 한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아프리카 난민촌에 성경 7200부 기증

성서공회, 기독교 NGO ‘함께하는 사랑밭’ 후원

대한성서공회는 기독교 NGO ‘함께하는 사랑밭’ 후원으로 아프리카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난민캠프에 성경을 기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증식은 지난 1일 경기도 용인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

서 열렸다. 이날 기증된 성경은 ‘누에르어 성경’ 5100부와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 2100부다. 누에르어 성경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누에르족 난민캠프에,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는 남수단에 보급된다. 전달은 남수

단성서공회가 맡는다.

누에르족과 딩카족 등 64개 부족으로 이뤄진 남수단은 2011년 수단에서 독립했지만, 내전을 겪었다. 현재 에티오피아 캄벨라 난민캠프 내 누에르족만 약 40만명이다.

호재민 대한성서공회 총무는 “두 부족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깨 성경’이라며 “올해 초 석 달 동안 오디오 성경 2000개가량을 배포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희망의 끈을 절실하게 찾았기 때문에 성경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VOM은 중국 현지의 훈련된 사역자들은 물론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 오디오 성경을 배포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성경을 원하는 주민에게 한 개씩 전달하는데, 북·중 국경 근처에 거주하거나 러시아 등에 노동자로 파견됐다 돌아온 북한 현지인들이 많이 받아간다.

장대로 진실로 선거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주권에 의한 국민의 의사는 왜곡되고 짓밟히게 돼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자유통일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 복음통일 및 자유통일, 예배(종교)의 자유 등의 가치를 내걸었다.

비례대표 후보 21명,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호남 지역 등에 8명의 지역후보를 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은 높았다. 1.83%인 51만 3159표를 얻는데 그쳤다.

지난 총선에서는 기독교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했다. 역대 최고인 2.63%(62만 6853표)를 득표, 비례대표 당선자 배출에 필요한 3%에 불과 0.37% 모자랐다.

부활절 기념예배 2주 뒤에 드린다

‘성도들 모두 모여서...’ 분당 지구촌교회 등 26일 예배계획

부활절은 지난 12일이었지만, 2주 뒤인 26일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자 부활주일 예배는 간소하게 드리되 부활절 기념예배를 따로 드리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 성남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등 수도권 12개 교회는 이달 초 모여 부활절 기념예배를 부활주일로부터 2주 뒤에 드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18개 교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부활주일인 12일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춘분이 지나고 첫 만월(滿月) 후 첫 주일’로 정하는데, 올해는 12일이었다. 부활절기는 이날부터 성령강림절인 5월 31일까지다.

최성은牧사는 “음력으로 따져서 4월 마지막 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적도 있으니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후인 26일에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교역자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수도권 교회 담임목사들과도 상의했다.

지구촌교회와 우리들교회, 예수행남교회, 더사랑의교회가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결정

했다. 이후 성남금광교회, 군포 새가나안교회, 부산 하늘소망교회, 군포 새가나안교회 등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호주 캔버라 한인교회도 동참하기로 했다.

최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것도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에 부활절 2주 뒤에 기념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도 26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함께 ‘부활절 축하 감사예배’를 드린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도 이날 ‘부활 기념 감사예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신천지, 불법용도 변경 과천집회시설 철거

위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에 시설물 외부로 옮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22일까지 경기도 과천 신천지 요한지파 시설을 자진 철거한다.

김종현 과천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면서 “과천시가 신천지 측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자 20일부터 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신천지 스스로 종교 집회 시설을 철거하고, 집기 등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별양동 소재 9-10층 시설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20일부터 3일간 한시적

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위 기간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면서 “과천시는 (신천지가) 해당 기간 중 시설 철거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신천지 측은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해당 시설을 13년째 3000명 이상 신도들이 드나드는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 과천시는 지난달 9일 신천지 과천 시설의 무단 용도 변경을 바로잡으라며 계고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5100만원

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천지 측에서 먼저 자진 철거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20일 철거 현장을 찾았을 땐 수십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직접 시설물을 외부로 옮기고 있었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청년 신도들이었다.

이날 발양동 소재 신천지 요한지파 시설 철거 현장에서 만난 과천시 관계자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시적으로 개방해 철거도록 하고 있다”면서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축 당시의 원래 형태로 원상복구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철거된 집기류는 경기도 내 신천지 시설 중 한 곳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관계자는 해당 집기를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국난극복, 야당-혁신과 변화’

한교연 정치권 향해 논평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16일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난 극복과 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논평에서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당에 전적으로 힘을 모아줬다. 반면 야당에는 자기 혁신과 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정부가 비판받아 온 경제 안보 외교 등의 이슈가 코로나19에 모두 매몰돼 각 당의

비전과 정책 대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선거에서 대승한 여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제20회 국회와는 다른 자세로 야당을 국정외의 진정한 동반자로 대우하며 협치를 도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실존은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며 “야당이 분골쇄신의 자세로 정책대안을 통해 보다 책임있는 정당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서게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목사·장로 정년제’ 어떻게 봐야 하나? 예정합동 공청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 교수는 “교회 성직자의 정년문제는 세상의 노동비용과 생산성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며 “성직자가 노동자가 아니고 교회 역시 물건을 생산해내는 기업이 아니며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목회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버티는 경우” ‘농어촌 교회의 조직교회에서 미조직 교회로의 전락과 노회의 존립 문제’ ‘젊은 목회자의 목회자 부족’ 등 정년제 연장이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목회자 자질에 문제가 생기면 노회가 나서서 권고사직을 하게하고 회중들이 목회자를 원치 않을 때는 노회가 조정해 나서 다른 교회로의 이직을 추천할 수 있다. 노회존립의 문제는 교단정치권 인사들이 명예욕을 내세우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를 거듭하며 줄고 있는 신대원 지원률을 고려하면 목회자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목회자후보생을 구하지 못해 목회자가 과거처럼 여러 교회를 목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정년제를 연장하기보다는 폐지되 총회가 ‘목회연장문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교회에 결과를 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정부가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평생법관제도’의 운영을 살펴보면 점목할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교수는 교단 내 목사 수급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결과를 소개하며 “총회차원에서 수년 내에 다퉈지게 될 목사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 수와 신학교졸업생 수가 유지 및 감소되는 경우의 수를 4가지로 나눠 목사 수급현황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4가지 경우의 수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회 수와 신학교 졸업생 수가 모두 감소할 경우’로 가정했을 때 2028년부터 목사 부족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정년을 1년 연장한다면 2031년 2년 연장의 경우 2033년, 3년 연장의 경우 2035년까지 부족현상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외 주요 교단들의 목회자 시무 정년에 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국개혁교회 교단(RCA)의 규정점목을 제안했다. RCA는 목회자 정년을 7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 시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교회에서 항존제에 속하는 목사의 임기를 다룰 때 유기적 조직체로서 개교회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며 “전체교단의 일률적 정년연장 혹은 축소가 아닌 현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개교회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미국의 주요교단 같은 정년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단에서 큰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개교회 목회환경을 고려해 소속노회를 거쳐 임기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공청회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교단 내 목회자와 장로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목회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안이 연구됐다면 더 실효성이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성도 수 감소에 따른 지역 내 목회자 간 협력, 교회의 통합 운영 등이 정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김종준 예정합동 총회장은 “정년 연장안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교단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택은 자유지만 그 기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기독교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의혹 제기 논평

“사전투표제, 전자개표기 통해 조작이나 부정행위 의혹 불분”

기독교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20일 ‘4·15 선거부정행위 의혹, 민주화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번 4·15 총선이 ‘부정 선거’라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독교자유통일당은 이날 이예란 대변인 명의로 “21대 총선에 두고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 달라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이번 4·15 총선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성이 최우선돼야 하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문재인 대선캠프 인사를 심어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 조작의

혹을 둘러싸고 특히 보수진영의 국민들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 사진들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며 4·15 총선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기를 통해 조작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분명 터져 나오는데에 대해 대통령과 관련 부처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변인은 “그러지 않으면 그러한 불신이 쌓여 국가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될 것이고 선거는 불필요한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라며 “만일 유권자들의 주

선교의 창 (14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음)이라 했던가? 완연한 봄기운에 꽃도 피고 비들도 푸르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잔뜩 움츠려 있다. 화사한 꽃과 한 폭의 그림 같은 하늘을 보아도 느낌이 없다.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가슴에 와 닿는 적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그늘이 온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데 인간이 어찌 봄을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오늘 4월 14일자로 Covid19 확진자가 215개 나라에 200만 명이 나 된다. 사망자는 12만 명을 넘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이럴 때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현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축구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다. 음악에도 곳곳에 쉽표가 있다. 그것은 무용한 것이 아니라 리듬을 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잠시 멈추어 서서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 한다면 이 기간은 너무나 소중한 수밖에 없다.

1. T.S. 엘리엇이 말한 잔인한 4월(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기억과 욕망을 뒤섞고/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겨울은 따뜻했었다/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 주었다.” 4월만 되면 회자되는 시귀가 있다. 미국 태생의 영국 시인인 토머스 스텐스 엘리엇(Thomas Stearns Eliot: 1888-1965)의 장편 시 ‘황무지(The Waste Land)’의 첫 구절이다. 시의 화자는 왜 소생의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그는 20세기에 들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생명력을 가진 것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서구인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했다. 그의 의도는 삶의 방향과 의욕을 잃은 채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는 현대인의 정신적 황폐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엘리엇의 개

인적 상실감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문명이 겪은 상실감과 결부해 확장된 문학작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황무지”란 시가 우리 한인들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4·19혁명, 4·16 세월호 참사 등 유독 이 시월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4월은 피 맺힌 달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앞선 달처럼 고통으로 금년에는 Covid19의 공격까지 겹치니 어찌 잔인한 달이라 아니할 수 있을까?

2. 무스타파 달렙 혹은 무명의 “코로나에 흔들리는 인류” 글 요약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아니하다. 스포츠에는 작전 타임, 음악에는 쉽표가 있다. 인류는 Covid19로 인한 멈춤을 한탄하기보다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중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해 내던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가격 낮추기 등도 해냈다.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 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당황스럽다. 부모와 아이들은 집에서 함께 하며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며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고 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차고에는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치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3. 역병으로 고통 받아 왔던 인류

석학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 박사는 폴리처상을 수상한 저서 ‘총·균·쇠’에서 질병이 인류역사를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 인류는 세균(혹은 바이러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 왔다. 세균이 공격하면 인류가 방어하는 식이다. 인간은 이를 통해 면역을 강화했고, 세균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연변

이를 만들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했던 유행병은 흑사병(페스트)이었다. 이는 1346-1352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발생한 인플루엔자는 2천 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현세도 인류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 고통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전 세계에 3,790만 명의 HIV 감염인이 살고 있고, 이 중 170만 명이 새로 발견되었으며 77만 명이 AIDS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처럼 인류는 유사 이래로 여러 종류의 질병에 시달려왔다. 지금 세계인을 포획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해야

류는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 현대는 문명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지구촌이 한 운명체이다. 지구상 어디에서인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가 금새 온 세상으로 나비효과를 드러낸다. 따라서 인류는 예기치 못한 쓰나미들을 예상하며 함께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맺음 말

4월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이 왔건만 봄을 느낄 수 없다. 예년 같으면 세상은 들뜨기 마련이다. 쾌적한 환경, 무성한 실록, 형형색색의 꽃들, 여기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각종 스포츠가 열기를 뿜어낸다. 지구촌은 상춘객(賞春客)들로 가득찰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0년 봄은 잔인하다. 봄나들이는커녕 모두가 방콕 상태에서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똑똑하고 잘난 인간들이 한갓 무생물인 바이러스에 이렇게 휘둘리니 이 또한 어리니하다. 지금 엘리엇이 살아 있다면 무슨 시를 쓸까?

모든 음악에는 쉽표가 있다. 쉽표는 음악을 음악 되게 한다. Covid19로 인해 우리는 원치 않는 쉽 가운데 있다. 우리 인생도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때를 잘 이용해야 한다. 그 방안은 무엇인가? 각자가 절대자 앞에 서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생명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언 땅을 뚫고 나오는 라일락의 소생과 마른 구근초(勸草)를 보라. 거기에는 생명의 강인함과 승고함이 있다. 우리 인간도 저를 화초처럼 역경을 뚫고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신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여린 무지개 계절아!”

jrjsong007@hanmail.net

할 것이다.

4. 인류 생존의 비결

역병에 대한 인류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인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환난의 이면에는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7:14-15).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 역병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둘째, 인류는 대 자연을 창조주로서 관리해야 한다. 그 조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터전이 지구가 병들었다. 이제 인간이 멈춤으로 인하여 하늘이 맑아지고 동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셋째, 인

드라마 서신서 (4)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상황을 알면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배경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후12:14과 고후13:1에 의하면 바울은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여 사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를 가려는 것은 ‘고린도 2차 방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후12:14과 고후13:1에서 세 번째로 고린도로 가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이미 바울이 한 차례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를 급하게 방문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교회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과 고린도 교인들이 보내온 고린도교회 안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

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소문이 고린도교회로부터 들려옵니다. 유대인 거짓교사들이 고린도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갈라디아교회에서 일으켰던 문제와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고린도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고, 바울은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급하게 고린도로 달려갔던 바울은 유대인 거짓교사들이 퍼뜨린 악한 소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에서 돌아온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다시 고린도에 간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린도로 가는 대신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고후2:1-4)입니다. 이 편지는 ‘디도’에게 전달을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쓴 후 바울은 에베소에서 철수하여 마케도니아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서 고린도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듣고 쓰게 된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도

를 만나기 전까지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편지의 필체와 어투가 많이 거칠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고후7:8). 그러나 디도를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많은 위로로 받았습니다(고후7:13).

이것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이 변증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부터 힘있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들려주는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

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임명 받았습니다(고후1:1). 무엇보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교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위로’

고린도후서: 바울의 적극적인 사도권 변증

디도를 만나 고린도교회 회개소식을 듣고 위로 받은 후 쓴 편지

를 받았는지 모릅니다(고후1:1-11까지 ‘위로’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2번째로 고린도로 급하게 방문한 후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나의 선교여행 계획은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유대교 복귀하려고 하였었습니다.(고후1:15)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고후1:23). 근심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고후2:1-4). 그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우리는 에베소를 떠

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하였습니다.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나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고후2:12-13). 그런데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마음에 낙심이 있었지만, 디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많은 위로로 받았습니다(고후7:5-6). 우리가 위로를 받은 이유는 디도가 전해온 고린도교회 소식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고후7:7-9).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고후7:16).

(이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침투하여 바울을 음해하며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반박하며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추천서’없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험담을 하는데, 저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추천편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편지에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별히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고후11:7-9).

나는 사도로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고후11:2) 수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육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고 사신에서 하나 갇힌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세 번 맞고 돌로 한 번 맞고 세 번이나 파손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과 강도, 동족과 이방인, 시내와 광야, 바다와 거짓형제의 위협을 당하며 주님과 목마름 등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고후11:23-27). 제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만(고후11:30), 또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고후12:1-4).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 언급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들은 많은 환란과 시련, 그리고 가난함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였습니다(고후8:1-5). 내가 디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께도 이미 권했던 것처럼 연보를 거두어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좋겠습니다(고후8:6-15). 사실은 내가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일년전부터 그 연보를 준비하였다고 자랑을 해놓았습니다(고후9:1-2). (그리고 13장에서 권면과 끝인사로 고린도후서를 마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내가 곧 고린도에 갈 것입니다(세 번째 방문). 내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상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dsukim@gmail.com

케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일들 위에 합쳐 하시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우기철의 비는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이 마싱가에서는 옥수수과 콩들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뚜기들도 케냐에 많이 있어서 잡아먹고 팔기도 하고, 피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3월 16일 케냐내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오픈 마켓도 닫았습니다. 21일에는 저희 선교부를 통해 나간 모든 단기 선교사들은 비행기 티켓을 조절해서 급하게 자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부에서는 각자의 사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나라로 들어가든지 선교지에 남아 있는지 하라고 했으며, 케냐지부의 리더들은 남아 있기로 했고, 나이가 많거나 아픈 분들, 면적이 약한 분들, 사정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도 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모든 비행기가 중단되어 케냐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

습니다. 그래서 한국대사관은 정부와 항공사와 비행기 편을 얘기해서 4월 6일 54명의 한국인과 외국인들을 더 태우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27일부터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되었고, 29일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나이로비는 4월 6일부터, 몸바사, 킬리피, 팔레는 4월 8일부터 3주 동안 도시 봉쇄령이 내려졌고, 마사벳, 만데라라는 락다운했습니다. 케냐는 코로나 진단 단 키트가 많이 없어 진단을 못해서 숫자는 적지만 병명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 마싱가에서는 2월 말부터 선생들과 아이들이 감기 증세로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선생 한 분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건축 일을 같이 하던 분도 3월 한 달 동안 아파서 나이로비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선교부의 케냐 중앙 리더한테서 전화가 와서 식량이나 먹을 것, 안전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통행금지와 밖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 폭동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싱가 신학교, 선교사 훈련 학교 2020년 1월에 2019-20년 학기의 3번째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학년의 모세 오경과 2학년의 대, 소산지서를 가르쳤습니다. 3월 13일, 28번째 졸업식은 일반과정 12명, 특별과정 15명, 그리고 무잉기 분교에서 10명, 모두 37명이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갔습니다. 힘있게, 충성스럽게 일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학교의 휴교령이 내려져 4월에 공부할 특별과정과 무잉기 분교 수업은 못하게 되었고, 5월에 있을 일반 과정 수업도 미지수입니다.

선교사 훈련학교도 4월 5일부터 2주간 공부를 하고, 신입생들 몇 명이 들어와 공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할 수가 없게 되어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학교는 1월에 학기가 시작되어 선생 5명, 학



생 32명이 등록을 하여 공부했고, 유치원부터 4학년까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학교를 한 달간 닫게 해서 학생 10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직 자립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학비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데 그나마 휴교령이 내려 학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을 월급을 학교에서 줄 수 없지만 도움이 되고자 주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4주를 남겨 놓고 끝나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 집에는 전기 없는 집들도 많고,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없어 온라인 수업은 생각도 못합니다. 5월 학기에는 어찌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

도 중에 있습니다.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선생들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거할 숙소를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건물 2채(방 8개, 공동 샤워실 2개)를 지었습니다. 유리창, 페인트칠과 부엌, 주변 정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큰 공간은 아니지만 독립된 방으로 혼자 쓰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족 학교 강의와 건축, 학교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졸업과 휴교령이 내려 쉬게 되면서 이예경 선교사는 2월부터 조금씩 아프던 부루셀라가 재발하여 고생을 합니다. 아주 지독한 치료약을 6주를 먹어야 하는데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약을 5일 먹고 나니 장기들이 상

해 많이 아파서 더 이상 약을 못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이곳에서의 건강, 안전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야타 지역의 270개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 특히 마싱가 지역의 6개 교회 교인들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없어도 각자 처소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아픈 사람들이 없기를 위해
- 마싱가 신학교의 학생들, 교수들, 선교사 훈련대학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케냐 마싱가에서 이사야, 이예경 선교사 드립니다.

isaiah.lee@aimint.org

선교 편지

인격교육, 신앙교육을 철저히 준비하여 학과 훈련을 잘하여 전 인격적인 인재로 키우도록 가도가 필요합니다.

4. 파라과이장로교신학대학이 3월 3일 개학식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계획된 프로그램 속에서 13명의 교수들과 50여명의 학생들이 보수 복음적인 영성 있는 목회자들로 잘 키우고 기쁨 받아 파라과이에 복음의 파수들로 우뚝 서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낮에는 직장 저녁은 신학공부를 하는데 연간 한 학생 장학금이 1000달러가 필요합니다. 4년이면 4000불 복음적인 목사가

교사로 지망하여 결국 선교사 훈련을 위하여 파라과이를 떠났습니다.

사위는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전 김신숙 선교사 장남인데 10세 때 아빠 따라 선교지 가서 인도어들과 공부하다가 미국 보스턴의 대학 경제학석사를 취득 미국서 은행 지점장까지 갔다가 다

접고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리교단 MK회장이고 MK장학재단(미국정부허가)을 만들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딸 정다운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파라과이로 와서 현지 공부하면서 총신 유아교육, South Wester 신학대학 기독교어린이 심리학석사를 취득하고 남편과 같이 하와이 아이에어 감리교서 9년간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방송을 하다가 다 접고 파라과이로 2019년 한해 동안 무보수로 영어 한글 포어 스페니쉬로 학교 교회 등에서 사무국장 기독교교육 전공 선교사역 하다가 지난 주간에 애들 셋을 데리고 훈련을 떠났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1)훈련을 잘 마치고 2)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가 되도록 3)3명의 어린자녀들의 앞날과 교육과 건강 위하여.

6.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

1)신학교 기숙사 신축 30만 불을 놓고 기도중입니다. 타국에서 복음적인신앙의 학사증을 취득하기 위해 문의가 이곳 저곳서 오는데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본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도시에서 분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교회와 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달은 신학교나 우리 일반 학교 교사 영성 운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3)2020년도 개학을 하는데 교사 교수들의 영성과 신학기 학생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4)오랜 숙원이었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학교나 교사 학생관리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알차고 복음적인 교사와 학생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축 후 20년이 지나서 보수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특별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어컨도 28대인데 하루 걸려 한대씩 수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임마누엘!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가 파라과이 복음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파라과이에서 정금태 이복래 선교사 드립니다.

amorr1004@hanmail.net

파라과이

1. 감사한 일입니다

세 자녀 중 한명이라도 목사나 선교사가 되길 기도했는데 큰딸과 막내가 목회자에게 시집을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 막내 가족이 선교사로 헌신 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사실 선교사로 헌신하려 할 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못 가는 이 길을 간다고 하니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방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2. 할렐루야교회와 Amorpaz 사랑과평화교회는 여름성경학교를 한 주간 내내 실시하였습니다.

1월 20일(월)-22일(수) 할렐루야교회서 32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해 달라고 심도깊게 성경과 기도와 후속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1월 23일(목)-25일(토)까지 사랑과평화교회서 여름성경학교를 비지뱃을 흘려가며 어린아이들의 전 낱새와 그리스도

의 향기를 범벅으로 3일간 목이 쉬어라 그리스도를 외치며 108명의 아이들과 천국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기독교예술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월 7일 금요일 하였습니다. 개학 준비를 위하여 방학 두 달간은 너무 바빴습니다.

1)2020년 새해 교사 32명 새 계약 퇴직한 교사 퇴직금. 2020년 신입생 모집 프랭카드 부착 광고. 건물 보수공사. 교실 15개 보수공사 의자 책상 150개 수리 페인트칠 식당 화장실 보수공사. 새로운 교복 신청 및 150여종의 교과서 주문 등등 바빴습니다.

2020년 우리학교 목표는 로마서 8장을 주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르치자' 로 정하여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하지만 인격자를 만들자고 강론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100여명 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교사는 32명이라 재정면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사들이 학교방침에 따라

탄생하게 됩니다.

5. 우리집에 큰 문제가 났습니다

막내딸 정다운이와 사위 이예경 전도사가 일년간 우리 사역지를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Midwest 국제 항공대학(원)

Pilot Certificate Program

항공 전문가에 도전하라!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항공경영학 학사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Aviation Management & Engineer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Doctor of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항공경영학 학사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미국의 타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20, J-1 Visa)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2-16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관과정 취득 후에는 교관으로 비행시간을 쌓을 수 있음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영어로 보는 성경 (61)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James 2:14-17

14) What good is it, my brothers and sisters, if someone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 Can such faith save them? 15) Suppose a brother or a sister is without clothes and daily food. 16) If one of you says to them, "Go in peace; keep warm and well fed," but does nothing about their physical needs, what good is it?

<NIV 2011>

WORD & IDIOM

* what good: 무슨 소용인 * claim to + V ~: ~ 하다고 주장하다 * deeds: 행함, 행위 * suppose: ~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추정하다 *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 keep + 형용사: 형용사 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 well fed: 잘 먹는

GRAMMAR

14) What good is it, ① my brothers and sisters,

그것이 무슨 소용이나 나의 형제자매들이

if someone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

만약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 => 나의 형제자매들이

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Can such faith② save them?

~ 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그들을 구하더? => 그러한 믿음이 그들을 구할 수 있겠느냐?

* <What good is it>에서 ①번의 <it>와 ②번의 <such faith>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킨다.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에서 <but>은 <그러나>라는 뜻을 갖는 접속사이다. 우리말의 경우 그 의미를 살려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적절하게 번역하면 된다. 이 문장에서는 <~ 하지만>으로 번역하였다.

15) Suppose a brother or a sister is without clothes and daily food.

가정해보라 형제 또는 자매 의복과 매일 먹을 양식 밖에 있다 =>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과 날마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가정해 보라.

* <a brother or a sister is without clothes and daily food>는 2형식(주어+동사+보어)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동시에 여기서는 <suppose>의 목적어 기능을 갖는 명사절이다.

16) If one of you says to them,

만일 (~라면) 너희 중 한사람이 그들에게 말한다,

"Go in peace; keep warm and well fed,"

평안히 가라; 계속 따뜻하게 하고 잘 먹여라

but does nothing about their physical needs,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

what good is it?

그게 무슨 소용이나? => 만일 너희 중 한사람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계속 따뜻하게 하고 잘 먹여라" 말은 하지만,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나?

* <keep warm and well fed>에서처럼 <keep>이 <~ 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라는 2형식(주어 + 동사 + 보어)문장으로 쓰일 때는 <keep>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는 점을 유의하라. 이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된 것은 명령형이기 때문이며 명령문에서의 주어는 듣거나 읽는 사람이다.

STUDY & THOUGH

■ 본믿음이 없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의 의식 등은 참여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자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즉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며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생활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이다.

■ What we believe and our actions must go together.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왕하2:19-21)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오직 참된 하나님인 되심을 증거했던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엘리사의 이름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쓸모없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나라 전체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역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성읍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주님께 나와 여쭙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화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왕하2:21-22)

여리고의 땅은 좋는데 물이 안 좋아서 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에 뿌리니가 물이 좋은 물이 돼서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은 먼저 엘리사는 여리고 사람의 부탁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좇아 다시는 죽음이 없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찌니라"하신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부패된 곳을 소금으로 막고 방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 기름진 땅과 같이 풍성한 축복과 열매 맺는 사람이 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수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왕하2:23-25)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을 조롱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섭게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가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42명을 물어 찢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뜻은 "너 대머리여! 너도 엘리사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꺼져 버려라!"

고 욕설을 퍼부은 것입니다. 베엘은 남북이 갈라진 이후 계속 우상숭배를 하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엘리사가 보기 싫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엘로 오니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거역할 때 남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목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왕하3:1-3)

본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극심하게 우상숭배 하던 아합왕과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며 충성하던 모압이 아합이 죽고 서서히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본문에서 주시는 귀중한 교훈은 성도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면 끝까지 전진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왕의 아

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와 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제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상숭배인 베엘과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금 여호와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왕하3:4-11)

여호람왕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조공을 바치며 충성하던 모압이 완전히 배반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 연합을 잘해서 나라를 확장하는 정책을 썼던 여호람왕은 작전을 짰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자세히 살펴보고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의 속국 에돔에게도 부탁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모압을 치러 내려갔습니다. 정말 완벽한 작전과 계획과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

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 길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7일 동안 군사와 생축에게 먹일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며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까? 이유는 한가지, 먼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조차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작전만 믿고 갔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 먼저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토 여호와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왕하3:11-12)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질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는 일을 아무리 대단한 계획과 작전과 힘이 있어도, 결국은 완전하게 고생만 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물을만한 여호와와의 선지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선지자를 찾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여쭙보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 때문에 드디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왕은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어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을 인해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사진으로 본 장영춘 목사 사역 60년..



▲ 2005년 6월 프래시메도우 파크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에서 마지막 날 축도하는 장영춘 목사.



▲ 생전의 장영춘 목사



▲ 1981년 퀸즈장로교회 건축 시공예배에서 장영춘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1960년 총신대 졸업사진



▲ 캄보디아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장영춘 목사.



▲ 뉴욕시교회협의회 회장 버나드 목사가 장영춘 목사의 성역5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장 목사부부.



▲ 본지 주최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에서 장영춘 목사가 김홍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2005년 뉴욕시교회협의회로부터 '특별지도자상'을 수상하고 축하를 받고 있다.

본지 2대 발행인 장영춘 목사 별세 (1면에서 계속)

둘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넷째, 인간은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 다섯째,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영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신 장 목사님 위대한 발걸음을 따라가자"고 강조했다.

장 목사와 우정과 섬김의 교제를 했던 천성덕 목사(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원로)는 "목회자요, 교육자, 기독교인인, 행정가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제자 김혜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교회)는 5년전 폐암선고 받았을 때 불편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격려해주신 사랑을 전했다. 퀸즈장로교회 사역자였던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는 온 가족이 퀸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며 자신의 인생에 장 목사님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이러진 교계 추도사는 이용걸 목사(중학교 때 신용산교회 강도사로 만난 스승), 방지각 목사(이민목회와 교회행정에 탁월한 탈란트 가지신 분), 안창의 목사(교계에 고귀한 버팀목이었다), 한재홍 목사(교회들의 아버지 역할), 김원기 목사(1976년 이민왔을 때 처음 수박 사가지고 심방오신 장 목사님을 뵈었다), 장석진 목사(76년 뉴저지에서 교회개척 할 때부터 목회지도를 받았다), 허윤준 목사(생명 다해 교회를 섬기시고 개혁주의신앙으로 무장하셨다)와 이영준 목사, 박성권 목사, 조명철 목사가 가정 등이 추모의 말을 전했다.

또 KAPC 증경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교단설립을 주도하고 교단발전을 위해 큰일을 많이 하신 목사님의 빈자리가 벌써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애도했고 현 부총회장 조문휘 목사도 "보수신학을 추구하면서 인재를 키우고 총회와 교계, 언론, 한국과 미국, 세계에 하나님나라 지경을 넓히는 데 강력한 리더"였다고 회고했으며, 김재열 목사는 "1965년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에 처음 만났던 장 목사님을 나의 신앙과 삶의 첫 사랑이며 흠모의 짝사랑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만호 목사는 "같은 교단이 아닌에도 사랑을 베풀어주심에 감사한다"며 "영적인 거인이셨다"고 추억했으며 노기승 목사, 강기봉 목사, 이지용 목사, 이윤석 목사, 조진모 목사, 백운영 목사, 조성윤 목사, 구자범 목사, 이숙규 목사, 이종태 목사, 김창길 목사, 박선도 장로 등이 추도사를 전했다.

이어서 조사를 맡은 엄태용 목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이 장 목사님"

이시라며 "자신에게 혼을 내도 빠지지 않고 뒤끝이 없다"고 말씀하신 장 목사님을 추억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별영양 시간에는 퀸즈장로교회 은퇴 장로들과 선교사들의 영상과 교인들의 한줄 메시지가 상영됐으며, 퀸즈장로교회 연합찬양대가 1988년 카네기홀에서 연주했던 "할렐루야"가 상영됐다.

60년 사역소개

60여년 사역을 살펴보면 1957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1960년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66년 예정활동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신용산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다. 1968년 도미하기 전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및 전국청년교회 회장을 역임했다.

미국유학 후 Central Theological Seminary(Th.M, 1970년)와 Faith Theological Seminary(D.Min, 1980년),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Ph.D, 1990년)에서 학위를 받았다.

1972년 뉴저지장로교회를 설립하고 74년 뉴욕으로 와 퀸즈장로교회를 설립해 2012년까지 시무했다.

교계적으로는 1977년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사역했으며 뉴욕교계 연합사업에 때로는 앞서서 때로는 뒤에서 후원하며 적극 참여했다.

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멤버로 1983년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미주내와 해외선교에 적극 참여 지원했으며, 성역 50주년(2009년)을 맞아 공로목사로 추대됐다.

1987년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고 학장으로 30년간 재직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목회자 양성에 힘써왔다.

1996년부터 세계선교대회(KWMC) 대표의장을 시작으로

2000년과 2004년 대회 공동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세계선교에 앞장서 왔다.

또 2005년 6월 뉴욕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대표회장 역임하고 뉴욕시교회협의회(CCCNY) 한국대표 및 부회장으로 미국교계에서 한인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저서로는 "복음의 능력"(로마서 한영대조 설교집), "창조주 하나님/God the Creator"(한영대조 설교집),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For Christ Alone"(한영대조 설교집), "짝사랑"(한영대조 칼럼집), "나는 하나님이라"(창세기 강해설교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한영대조 설교집), "사랑하는 나침반"(어린이 강단),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 "평화의 이상", "데오빌로여"(한영대조 설교집), "로마서 강해"(한영대조 설교집) 등이 있다.

(취재부)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